



현대아파트



지구를 아름답게 인류를 행복하게

현대아파트는 자연을 우선 생각합니다.

인류의 제1과제는 환경—
미래행복의 제1선택은 자연—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정신으로
현대아파트가 자연을 담은
인류의 행복을 만듭니다
현대의 21세기 마지막 선택은
고품질의 자연주의입니다.

현대아파트

現代建設株式會社
주택사업본부

1995. 5

연세 백양: 3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발행인/유승미 · 발행처/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 발행일/1995년5월27일 · 편집위원/왕세경, 한지혜



“상쾌하고 건강한 아시아나 여행”

고객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아시아나가
전노선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흡연석이 따로 있더라도 비행기내부는 일체 금연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 흡연석과 비흡연석이 분리되어 있거나 비행기에는 일체 금연 공간이고 내부 공간은 순환됩니다. 따라서 기내 흡연은 흡연자에게는 물론 비흡연객의 비흡연자들에게도 무척 해롭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아시아나 항공은 고객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전노선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도 35,000~45,000피트 상공에서의 흡연은 지상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항공공학 특성상 높은 고도로 운항 중인 비행기내에 기압은 지상보다 산소가 30% 부족한 0.8기압 상태입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흡수될 경우 산소공급을 둔화시켜 재산소화의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고도로 운항하는 비행기내의 흡연은 지상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항공기내의 금연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는 96년 6월부터 전세계 항공기 노선의 전면 금연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미 단거리 구간에서 금연을 실시해오던 아시아나항공은 세계적인 추세에 앞장서 96년 1월 1일부터 금연제도를 전노선으로 확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여행은 아시아나와 함께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헌분 헌분에게 민족을

아시아나항공

■ 항공예약 : (02) 774-4000 ■ 자문예약서비스(ARS) : (02) 774-8888 ■ GTR/공무승객여행안내 : 서울여객지점 758-8017 • 정부1층사 722-1527 • 정부2층사 504-8333

청결세대-옥시

청결한 집, 청결한 가족,
청결한 우리 강산을 가꾸어가는 사람들 -
바로 옥시가 꿈꾸는 청결세대입니다.

「물먹는하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물먹는 하마의 이름과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물먹는 솜씨는 그 누구도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습기제거제 이름이 물먹는 ○○이며 물먹는하마와 비슷한 용기로 되어 있다는걸 아세요?

그러나 물먹는 하마의 이름과 모양은 흉내낼 수 있겠지만 물먹는 솜씨는 그 누구도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꼭, 물먹는 하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강력 습기제거제
물먹는하마

본사대표 : (02) 421-6789 소비자상담실 : 080-022-9547(상당심 전하는 무료)

양서보급 43년!



도서출판 박영사는

문화발전과 품격있는 인성의 율택을 위해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출판인의 사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博英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3-31번지 · 전화:02-733-6771 · 팩스:02-736-4818

代表 安鍾萬 (상경대 응용통계학과 1회 졸업)

C
O
N
T
E
N
T
S

1995. 5

제 3 호

연세 백양 3집 발간을 축하하면서 · 이남숙	8
인사말씀 연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 유승미	9
백양잡담 동문들의 해안으로 모교발전의 계기되길 · 심지선	10
여성에 대한 인식도 세계화 · 신동식	
동문잡담 대화로 푸는 자녀문제 · 이성호	14
백양논단 "전리를 알지니 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김정주	18
여성과 정치 · 홍은희	23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쉼과 활 · 이은영	28
여성 사회적 지위의 후진성 :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진수희	32
건강정보 중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 박계숙	38
동문탐방 예지희 · 이광선 · 유희인 · 정현주	47
재언 여동문회에 바라는 재학생의 변 · 김은숙	52
백양수필 길어왔던 시간을 돌아보며 · 한정현	54
다시 한번 살고 싶은 내 사랑(알로하) · 장영지	
시 서시 · 문동주	59
동문수필 언더우드관 앞에서 · 안종만	60
여대니 연세는 항상 내 고향 · 한세구	
백양모임 58년 동기모임	64
모교소식 여동문의 날 열려 바	66
안내	70
주소록	73

◎발행인/유승미

◎발행처/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 발행일/1995. 5. 27

◎ 편집위원/왕세경, 현지혜

◎ 표지글/김형순 (고 오화섭 교수 부인, 58년 영문과졸)

◎ 편집/살과꿈

살아계신 하나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던 우리를

말씀의 생수로 세워주신 선지동산 연세로 부르시어

진리로 눈 밝여 주시고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깨닫게 하신

은혜는 축복이었습니다.

동산을 떠나

베들레헴보다 빠른 세월의 광야길을 가면서

예 더 할수록 연세는

그리움과 위로의 동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열하는 태양으로 심령이 고갈되어 갈 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고뇌를 극복한 십자가의 평화를 보라

신령한 이 음성들은

진실로 연세 어머니의 기도연줄 믿습니다.

여동문이 모이는 곳에 푸르런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가 있는 연세 여자동창회에

어머니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이 이웃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남숙 (세명고 교무 목사, 59년 입학과 졸업)



유승미 (연세 동창회 회장, 69년 장외과 졸업)

연세 발전의 전인차 역할을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 연세가 올해로 110주년의 전통있는 학교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음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남녀 공학을 실시한 우리 연세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쯤 시작한 길지않은 남녀공학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여성이 총동문의 25-30%를 차지하고 있고 재학생도 그 이상의 비율을 여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여성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또한 그 비율에 걸맞는 것이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연세를 나온 많은 남성동문들은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행정, 언론, 금융, 기업 각 분야에서 요직에있는 반면에 여성동문들은 그렇지 못한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제화 세계화로 달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성도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자질을 국내 국외로 뽐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졸업을 앞둔 우리 여학생 후배들에게 여동문들이 해주고 있는 말은 대체적으로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

라는 요지이지만 아직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많은 제약때문에 그냥 결혼과 동시에 가정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학을 앞둔 많은 여학생들이 연세를 선호에서 실력있는 남학생들을 제치고 들어와서는 졸업을 앞두고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여동문들은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관심을 갖고 잘 이끌어주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졸업 후에 학교에 남는 문제도 고려해 주시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연세가 세계속의 연세로 도약하려는 이 때에 우리 여동문들도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잘 지키고 모교도 사랑하며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모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관심 기울여 주시고 여동문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 여동문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서 우리 대학을 세계 100위 이내의 학교로 발전시키는데 전인차의 역할을 하십시오. 5월 마지막 토요일에 있을 여동문의 날에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동문들의 혜안으로 모교발전의 계기되길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 모교 사학과 졸업)

‘연세 백양 3호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 이 지면을 통해 연세 여동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래 헤어져 직접 대면치 못하던 동문들과 간접적으로나마 대화하며 따뜻한 정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또 자칫 생활의 일상성에 묻혀 잊어 버리기 쉬웠던, 여성과 연세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자각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일에 힘썼던 것도 우리 ‘연세 백양’의 공이였습니다. 21세기 미래의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할 모교에 대한 우리 여동문들의 사랑과 관심은, 모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돌이켜 보면 모교에서 우리 나라 처음으로 남녀 공학을 시행한 일은, 우리의 교육사, 여성사, 사회사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한 대사건이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안목이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한 교육적 의지의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고마움이 없더라도 우리의 스승님들과 모교에 감사와 존경, 긍지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제가 연세동산에 들어선 1948년은 여학생들에게 모교는 아직 쉬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학생들에게 입학할 허락했던 학교의 용기만큼이나 여학생들의 용기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20명이 채 되지 못하는 여학생 동기들과 더불어 들어선 모교는, 우리의 꿈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순결한 신앙으로 마음이 하나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참진리를 깨우치며 우리를 가두었던 편견과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그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가해진 사고의 정형화된 틀을 깨뜨리도록 하고, 여성이 남성들과 동등한 가능성을 지녔음을 확인시켜 그 가능성을 능력으로 극대화시켜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여학생들만의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 학생들이 함께 깨우치며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세의 교육적 성과는 놀라운 것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모교에서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교육계에서 43년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때를 지낸 뒤 그 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지금, 새삼 오늘의 내가 있게 한 모교와 스승님들, 동문들에게 감사와 감사의 마음이 솟구칩니다. 모교의 강단에서, 일선 고등학교 책임



자의 위치에 서, 여기저기 사회 교육 기관의 일원으로서 평생을 큰 잘못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행복이, 미약한 능력을 덜어주었던 모교의 훈련 덕분에였던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번의 ‘연세 백양’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는, 모교 출신의 여동문들이 졸업 후에 재학 중의 뛰어난 능력을 사장시킨 채 가정에서만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학교와의 비교에서 나온 지적이었지만, 정확한 통계적 수치나 졸업 동문의 수를 고려한 평가 등이 필요한 일인 만큼 선부른 판단은 자제하고, 오늘날 여성 문제에 관한 일반적 접근이 유효하리라 믿습니다.

여성의 문제는 자칫 이데올로기나 집단의 이해 관계에 바탕을 두고 제기되기 쉽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가득했던 초기의 운동 단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선언적이고 구호적이며 투쟁적인 성격으로 인해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얻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일정한 책임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왜곡된 사회통

념에 안주하는 편안함을 선택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녀 평등이 단순한 원칙이며 구호가 아니라, 능력이나 성격면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객관적 진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실제의 사고와 행동, 삶의 자세로 전환시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전진적 자세로써 자신의 취향과 능력의 방향에 따라 거리낌없이 사회의 각 방면으로 나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회소성으로 평가받거나 선구적 가치로 인정받는다든가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남성과 더불어 이상 사회의 목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권리의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적용하게 될 때 융통성 있는 시각과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과 제도는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적 활동은 일에 대한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 가정의 문제나 자신의 신념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개인의 경우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특정인의 진보적 시각과 가치를 너무 고집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획득하는 것도 중

요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여동문들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자기를 구현하거나 사회적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작은 집단에서의 역할이 낮게 평가되어야 할 것만은 아닐 듯합니다.

밀려오는 개방화의 물결, 교육 여건의 변화는, 모교를 비롯한 대학 사회에 커다란 자기 혁신을 강요하는 시점입니다. 질적인 향상으로 획득한 경쟁력만이 모교의 훌륭한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모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러한 과제에 해결 방안에 대한 비판속에서, 동문들의 혜안에서 나오는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대화로써 서로에게 이해되고 그렇게 마련된 합의의 바탕으로 협력하는 연세인의 일체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가 또한 호기가 될 수 있는 기로에서,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관심으로 이해로 우리 여동문들과 전체 동문이 변화와 발전의 대열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그간 저에게 배려해주신 여동문들의 성원을 더우기 저의 정년에 즈음하여 주신 특별한 사랑 지면을 통해서나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모두에게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Women should be seen,
not be heard.

대강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시절
부인에게 이른 말이다. 울지로 입
구에 아직 반도호텔이 있을 때 엘

여성에 대한 인식도 세계화



신동식 (서울신문사 논설위원
62년 장외과 출임)

리베이터에까지 달라붙어 인터뷰
를 조른 기자에게 완강히 거절하
며 들려준 프란체스카여사의 말이
다.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귀에 박히게 타이른 교훈이 그 말
이라서 아무말도 할 수 없다고 했
다.

그 다음은 종로 이화장에서 그
어구를 다시 들었다. 하와이에서
영구 귀국해서 안주에 들어선 때
인데도 무슨 말이던지 극히 삼가
고 있었다. 미국 풍습이 몸에 벤
신사이고 서양부인과의 생활하는
노 대통령도 여자는 모습은 보여
도 소리내서는 안된다는 사고 속
에 있었다.

우리사회 철저한 여성참여 봉쇄
사고를 표출한 대표적인 언어다.

얼마전 일본 유수 중앙지의 한
사설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것인가 직장을 고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라며 이런 고민 자
체가 여권이 원동하게 신장된 것
을 뜻한다는 논지를 삽입했다.



여권은 우리에게서나 일본에서
나 상당히 높아졌다. 남녀고용평등
법이 있고 성폭력방지법이 있고
민법상 재산상속권 재산분할권이
상당한 선으로 개선됐다. 이제 일
본서는 정년퇴직한 남편들이 부인
들에게 이혼당하는 것을 겁내게
되었다. 퇴직금을 반분해 주고 쫓
겨나는 경우도 보고있기 때문이다.
여성들 제1목표가 결혼이 아니고
우선 직장부터 잡는것이 되었다.
올해 직장진출에서 우선순위를 남
학생에게 빼앗긴 여대졸업자들이
고용대상 회사에 항의하는 강렬한
데모도 있었다. 우리도 고학력 여
성들 상위목표가 직업이고 고용차
별항의 여대생들의 고발도 있었다.
돈 없이 남자가 마음대로 이혼 못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일본을 들먹이는 것은 우리 사
회 성차별이 일본 식민시대 유산
중 가장 골수에 박힌 것이라는 말
을 하고 싶어서이다. 광복 50년이
되었지만 이 골수병폐는 치유되
지 않고 있고 모두들 알지도 못하
고 있다. 나비부인 오페라 장면같
이 방문밖에서부터 끌어앉아 남
편 맞는 잔재가 우리 남성들 마음
에 향수로 남아 있는 것을 도처에
서 듣고 보게 된다. 여자를 우습
게 알고 무슨 경우로나 복종하고
뒤쳐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태도가 일제 식민지시대 잔재
란 것을 모르고 답습하고 있다.
역사서를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보통 집안에서 조차 부인에
대한 학대와 반말, 종같은 복종
강요는 없었다. 옛시대 농경제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오늘
같은 사회참여 길이 없었기 때문
에 그 시대 여성들이 집안에서 안
주하는 것 뿐이지 오늘날은 산업
사회였다면 그때 여성들은 동등
하게 모든 분야에서 활동했을 것
이다.

광복 50년 되는 올해는 모든 일
제 잔재를 털어버려야 한다. 총독
부 건물을 들어내는 것과 함께 편
협한 대여성 우위사고도 떨어내야
한다. 일본은 이미 경제사회 분야
에서 선진대열에 들어선 것 같이
여성 사고에서도 서구수준에 이르
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일부 편

협한 전통사고가 남아 있기는 하
지만 많은 분야에서 벽을 허물고
남녀가 함께 발전하는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인구의 반인 여성발
전없이 국가발전 없다는 인식을
공사 조직이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차별 철
폐 위원회에 전화로 고발하여 시
정토록 하는 제도도 허용하고 있
다. 국제적인 분야에도 여성을 많
이 참여시켜 선진여성들과 동등한
활동을 하게한다.

올해 9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 4회 세계여성회의가 열린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
민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성에 근
거한 구별을 하거나 배제 또는 제
한하는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다짐하는 회의다. 유엔
가입 모든 나라에서 정부 및 민간
단체가 참여, 차별 철폐를 위한 국
가 의무이행을 확인하고 사회조직
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된다. 한국은 여성지위에 있어서
는 중진국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평가됐다. 여러 사회지표와 여성
복지지수를 종합한 결과라고 한
다. 남성들 대 여성 사고 방식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지수는 훨씬 하
위로 처질 것이다. 인구의 반인 여
성 지수가 낮아지고는 국제사회
에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없다. 세계화를 외치는 시대에 대
여성 사고도 획기적으로 세계화돼
야 한다.

대화로 푸는 자녀문제



李星鎭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음 식당 종업원의 얘기다. 남녀 한쌍의 손님이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부부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보아서, 값싼 음식을 주문하

고 별로 말이 없고 음식을 먹고 또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고는 행하니 일어서면 그들은 틀림없이 부부관계라는 것이다. 부부가 아니고 연인사이든 그저 친한 동료 사이 같으면 대체로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무엇인가 재미있게 웃으며 얘기하고 그러다보니 오래 앉아 있다 나간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다. 부부가 타고 가는 차는 대체로 꾸물거리지 않고 빨리 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가 아닌 경우, 남녀가 뒤통을 때는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자꾸만 브레이크를 밟고 꾸물댄다는 것이다.

그저 재미있거나 하고 들은 얘기지만, 여기서 한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부부 사이에 정말 그렇게 대화가 없는가 하는 점이다. 결혼 후 처음에야 그렇지 않았겠지만, 살을 맞대고 한해 두해 오래 살다 보니 말 없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서, 점차 대화가 필요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 점차 사랑의 감정이 희석하고, 그저 결혼했

으니까, 부부라는 연을 그렇게 쉽게 깰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저 서로 적당히 편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보면, 뭐 그렇게 할 말이 있겠는가 해서 부부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들 가정에서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이토록 대화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들간에 대화가 없다. 많지도 않은 식구이고 보면, 그리고 어쩌다 보면, 하루에 식구들간에 단 몇 마디라도 주고받지 않고 하루가 가버리는 때도 많아졌다. 더욱이 요즘엔 옛날과 달리 모두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어, 자칫하다간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마주 앉아 한가롭게 얘기를 나눌 기회도, 시간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저 집이니까 밤이 되면 모두들 들어와 자고 또 아침이 되면 모두들 흩어져 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루 이를 살아가다 보니, 같은 지붕 밑에서 함께 잠자고 함께 밥을 먹어도, 그저 서로 멀리만 느껴지고, 서로 보아도 닭보듯 소보듯 말이 없고, 그래서 우리네 가정에선 대화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를 보아도 그렇다. 대개는 자녀들쪽보다는 부모쪽에서 오히려 대화를 기피하고 대화를 억제할 때가 많다. 아이들



이 엄마,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라도 하려들면, 대개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들어가 숙제나 해!” 하고 대화를 막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속으로 무엇인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아이들이니까 선뜻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릴 경우가 많다. 그 때 부모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살살 끌어내서 얘기를 하도록 하기는 커녕, 그냥 퇴박을 주는 부모가 많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네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을 수 있니? 웬! 옷을 안 사줘, 밥을 안 먹여줘, 사달라는 책을 다 사주고, 도대체 네가 무슨 고민이 있답? 너 같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도 생각하게 되고

문제의 성질도 분석하게 되고,

그 해결 방안도

찾아 내게 되는 것이다.

이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어디 있다고 모두 다 분에 겨운 줄 알아! 그저 공부 한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자못 할 말을 잃는다. 아무런 대꾸도 않는다. 입을 다물고는 아무런 얘기도 않는다. 부모와 자녀간의 거리는 그렇게 해서 자꾸 멀어지는 듯 싶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돕는 책임을 갖고 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와주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얼마만큼이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이나 했는가? 그래도 엄마의 경우는 좀 나은 듯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도 생각하게 되고 문제의 성질도 분석하게 되고 그 해결 방안도 찾아 내게 되는 것이다.

얼핏 들기에는 모두가 시시한 쓸데 없는 얘기들인 듯 싶어도 언제나 그런 식으로 대화는 출발하고 그래서 이어져 나

가다 보면 서로에게 생각을 일깨우는 의미있는 내용들을 갖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화는 시작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꼭 정해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무거운 화제를 정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식탁에서, 소파에서, 책상에서, 벤치에서, 그저 아무 곳에서, 아무런 얘기고, 아무때나 아이들과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시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떤 연구소에서 보면,

47%의 우리네 어린 중학생들이 때때로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자기네를 이해해주질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그네들의 얘기를 우리네 어른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을 듯 싶다. 가슴에 가득 차서 웅어리져 있는 많은 느낌, 생각, 그리고 이야기들, 우리 부모들은 우리네 어린 자녀들의 그러한 웅어리를 그들 스스로 풀어 나가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 방법은 바로 그들과의 대화이다. 어른들 끼리도 그렇다. 부부간에도 그렇다. 웅어리져 있는 생각들을 가슴에 그냥 그렇게 묻어 두기 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 스스로 풀어 나가도록 서로 도와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녀교육,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엔 정답이 없다. 어쩌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특히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어서 그들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자녀교육의 90%가 아닌가 싶다. 대화가 있는 가정,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밝은 가정, 그런 가정이 많아질수록 우리네 사회도 더욱 밝고 아름답고 정겨운 사회가 될 성싶다. 부모들이여! 이제 지금 곧 당신의 크고 따뜻한 가슴을 열고 아이들 가슴속에 웅어리져 담겨 있는 얘기들을 들어주십시오.

패션 다이어트



똥똥해도 멋낼 수 있다구요?
이젠 패션으로 다이어트하세요!

현하의 차밍스쿨

멋쟁이가 됩니까?
가을 옷에서 무얼 입을까 망설이지!
지극한 적도 있구요.
그날이 그날은 옷차림에 출근일이!
괴롭기도 하죠.
편안하고 옷 차림을 간편한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지요.
멋쟁이라는 말은 멋쟁이도 센스있는 여자도
보여서는 안되겠죠!

현하 지음/규격 외/226면/9,500원

생활의 달인 다이어트
살과몸 서울 강동동 1번지 창고빌딩 2607호
전화: 755-8014-5, 팩스: 779-5923

朝鮮日報 창간 75주년
1920-1995



‘옴부즈맨’은 독자편에서
신문을 만든다는
조선일보의 철학입니다.

조선일보가 최초로 도입한 ‘옴부즈맨’ 제도는 독자의 지적을 통해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고 오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와 권리를 신속한 정정기사로 최대한 빨리 회복 시키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책임문제를 부각시킨 기록제가 됐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전화: 02-724-5588
옴부즈맨 팩스: 02-724-5059
옴부즈맨 PC통신(하이텔·천리안) ID: chosun
사서함: 110-604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414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

졸업반의 한 여학생이 신입생 시절 연대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니코틴중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연대가 학생들을 이 분야에 더 깨어서 지도하여야 할 것을 깨닫는다.



김정주 (영재학원교수
신과 대학 졸업)

“성서와 기독교” 필수과목을 가르치면서 필자가 매일 연대 캠퍼스에서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이 한가지 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나르면 학생들이 몰려 나오면서, 복도에서부터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복도가 굴뚝 같아서 호흡하기가 괴롭다. 건물 밖에 나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걸으면서 혹은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들은 담배연기로 호려진 공기를 들이 마시면서 간접흡연의 고통을 겪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것을 본다. 담배를 피우면 40대를 못넘기고 폐암으로 죽는 확률이 심히 높은 것을 오랫동안 금주금연운동에 종사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필자는 학생들에게 술담배 해독을 알리고자 힘을 쓰고 있다. 동시에 정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중독성 식품에 대한 해독을 알려 학생들로 하여금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보건의학이 발달한 하바드 대학교가 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캠프리지 시의회는 1986년부터 공공장소 금연 법안을 통과시키고 위반하면 500불 벌금을 내게 한 후로, 필자가 공부하던 하바드 캠퍼스는 물론이고 도시 전체 공기가 그때부터 깨끗해졌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싱가포르의 나라 전체에 공공장소 금연을 의무화하고 큰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졸업반의 한 여학생이 신입생 시절 연대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니코틴중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연대가 학생들을 이 분야에 더 깨어서 지도하여야 할 것을 깨닫는다. 흡연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음으로 유엔은 금연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며 연세의료원장이신 김일순박사님이 한국의 금연협회회장으로 오래 수고하고 계시는 이 때 연대 캠퍼스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환경오염도 막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연대 캠퍼스가 금연구역이 되면, 2,000년대까지 담배연기 없는 나라가 되고자 목표하는 뉴질랜드같이 국제사회서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은 50% 가량이 대학생활에서 과음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축제시만 되면 각종 맥주회사가 앞다투어 캠퍼스와 대학 정문 앞에서 맥주시음회를 개최하며, 과음으로 인한 탈선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곤욕을 치르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학생들이 있음을 신학기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선배들과 친구들이 권하는 술을 뿌리치지 못해 수업도 참석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알콜은 자손 삼사대까지 뇌를 손상시키는 가장 무서운 마약임으로 백낙준 총장은 술을 독약이라고 불렀다. 대다수 학생들과 한국 국민들은 술의 해독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결과적으로 유엔 통계 발표와 같이, 한국은 음주로 인한 간암으로 40대 남자사망율이 가

장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을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강요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마시다 결국 신입생 한 명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 술을 캠퍼스에서 몰아내는 운동에 미국의 학부형들, 학생들, 교수들이 힘을 합하여, 여러 대학교, 기숙사가 금주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콜럼비아 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수십개 대학 총장들이 캠퍼스에서 음주를 금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미쉬간대학교 캠퍼스에서 금주를 의무화한 기숙사는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학생들의 신청이 쇄도해서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미국 켄터키주 워싱턴대학 의대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태아알콜중독증세가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국민 보건에 가장 큰 위협요소임을 정하고 여성들이 임신 중에 술을 캠퍼스에서 몰아내는 운동에 미국의 학부형들, 학생들, 교수들이 힘을 합하여, 여러 대학교,



기숙사가 금주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콜럼비아 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수십개 대학 총장들이 캠퍼스에서 음주를 금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미쉬간대학교 캠퍼스에서 금주를 의무화한 기숙사는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학생들의 신청이 쇄도해서 다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미국 씨애틀주 워싱턴대학 의대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태아알콜증후군이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국민보건에 가장 큰 위협요소임을 경고하고 있다. 여성들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태아알콜증후군을 가진 지진아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고, 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걸으로는 정상인과 다르지 않으나 지진아증세가 사회생활 전반에 나타남을 발견하고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유엔과 온 세계 보건행정당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태아알콜증후군예방을 위해 임신 중 금주를 강조하는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여성 음주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와 함께 지진아의 출산도 병원수용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AFKN은 술의 해독을 규칙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한국 텔레비전에는 젊은 여성이 맥주 광고에 나와서, 여성 음주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미국에는 법으로 알콜 판매를 규제하고 있어 20세 이하의 술을 살 수 없고 아무데서나 술을 팔 수도 없다. 그러나, 한국은 주류판매광고를 자유화하고 있어,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음대로 팔고 있다. 그 결과 10대 어린 청소년들까지 음주로 인해 탈선하는 행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나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한국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일전 연세 여동문지 "연세백양"에 술선전 광고가 난 것을 보고 매우 슬펐다. 여동문들은 자신은 물론 가정과 자녀들의 인격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인이다. 여동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술담배의 해독을 열심히 깨우치고 술선수범하여 금주금연을 실천하여야 하겠는데, 술광고라니!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구라



파의 여러 나라들과 캐나다 등에서는 술담배광고를 불법화하고 또 국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술담배의 해독을 교과내용으로 가르치며, 알콜중독자들 재생을 위한 시설을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전매청을 통한 담배판매를 국가 수입원으로 생각하며, 또 술 제조 및 판매를 자유화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 차원에서 술담배 마약 해독을 홍보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너무 미미하다.

1994년은 유엔이 세계적으로 제정했던 가정의 해였다. 그러나 한국 가정들 속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무서운 사건들이 연일 신문을 채웠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살인하고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이 1995년에도 우리 국민들을 계속 경악하게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망각증이 심한가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온 국민이 잠시 물 끓듯이 놀라다가도 그 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다. 연대 학생이 유혹비를 벌기 위해 수차례 여성들을 농락하고 협박하다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이대 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여도, 그러한 사회문제를 일으킨 데 대한 반성문을 한 줄도 학교 신문에서 읽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학교신문은 동성연애, 혼음, 성해방에 대한 각종 음란기사가 가득해서, 그러한 행각을 부추키고 있다. 심히 두렵다.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은 지나갔으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연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범죄와 마약 복용문제, 사창가 인신매매, 그리고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존속상해 등의 문제들우리가 결코 간과해서 안 될 것임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지금부터 112년 전, 미국 노트웨스턴 대학의 첫 여성 학장이었던 독실한 감리교인 프랜시스 윌라드 여사는 당시 사회에서 술로 인하여 가정과 개인이 무섭게 파괴되고 있음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교파적으로 1883년 절제운동을 일으켰다. 그 운동에 모든 기독교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되자, 윌라드여사는 금주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12년 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사회의 병폐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정의 책임을 맡은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윌라드여사는 여성참정권운동을 일으켰다. 여성참정권운동과 금주운동을 결부시켜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는 가운데, 뉴질랜드 절제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참정권을 1893년 국회에 통과시켰고, 미국 국회는 금주법을 통과시켰다. 윌라드여사는 1888년에 세계여성단체협의회도 창설했으니 가히 여성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다.

3년마다 열리는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의 33차 세계대회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1995년 5월 '사랑으로 섬기며, 평화, 순결,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자'는 주제 하에 열릴 예정이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1923년 창설된 이래 초대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여성운동으로 전국 교회 대다수 기독교성들이 절제회원으로 금주금연운동에 앞장서 초대교

회 영적 부흥에 크게 이바지했고 지금까지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현대인을 노예화하는 술, 담배, 마약 근절을 위해 금주금연운동 마약퇴치운동을 전개하여 각 가정을 복음화하고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여성이 기독교성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연세의 여동문들도 한국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지도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

백양로를 따라 가다 이르는 본관 앞 뚝에 세워진 언더우드선교사의 동상을 기억하지 못할 연세 여동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선교사가 연세대학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여동문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그러므로 연세 설립이념은 무엇이며, 그 이념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연세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후배들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끝으로 생각해 보자.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뉴브런즈윅 신학교를 갓 졸업한 25세의 젊은 청년목사였던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독신으로 미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첫 개신교목사로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후 1905년 과로로 쓰러져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는 한국 복음선교를 위해 생명을 바쳐 열심히 일했다. 30년간 한국에서 언더우드의 삶은 한마디로 해서 복음전도자의 삶이었다. 그가 수많은 사업-성서번역, 새문안교회 등 많은 교회 개척, 찬송가, 한국어문법, 한영사전 출판, 기독교교회, 교회협의회, 성서공회, 경신중학교, 연회전문학교, 세브란스병원 설립-을 한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복음전도를 위해 언더우드는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데도 몸을 돌보지 않고 연회전문학교 설립에 정열을 쏟았고, 그 결과 연세가 오늘과 같이 대표적 기독교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놓이게 되었다. 오늘의 연세대

학교와 그 동문들은 창립자의 뜻을 기억하고 받들어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연세의 이념, "진리와 자유"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8:32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추상적이며 사변적인 인간의 주관적인 어떤 견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되심을 가리키고 있다.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었던 한 목수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 바로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흘만에 부활하게 하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연세가 이념으로 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자유"이며, 한국 사회와 나아가서 온 세계에 이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학교의 이념으로 삼은 것이다.

연세 여동문들은 스스로 물어 보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하는가? 나는 진리되신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항상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좇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가? 이 세 대답에 확신있게 긍정적으로 대답 못한 여동문이 있다면, 그는 이 대답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회개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를 창립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학생들을 배출하여, 한국과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10년 동안 기독교 사학으로 연세대학교는 존재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갇혔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힘써 왔다. 창립 110년을 맞으면서 연세대학교는 과거의 업적과 부족했던 점들을 살펴 보면서, 현재의 연세가 서 있는 위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할 시점에 도달했다. 창립자 언더우드는 오늘의 연세인들에게 도전한다.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었느냐?" 연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배출에 있다. 연세대학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 설립 때에 이미 정해졌다. 진리되신 그리스도를 모든 연세인들이 먼저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연세가 앞으로 나아갈 길임을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삶은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증거한다. 연세의 모든 여동문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예수님 제림 때까지 충성된 주님의 증인이 되어 후배들에게 절제하는 성결한 기독교인의 참 본이 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린다.

여성과 정치

"여성의 대표"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성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홍은희 (중앙일보 생활여성부장, 78년 신임과 졸업)

본 격적인 지방자치 원년으로 기대되는 올해는 특히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집권여당인 민자당이 처음으로 광역의회의 비례대표할당분을 모두 여성에게 주겠다고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서울에서는 여성들이 비례대표 티켓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연 여성과 정치는 어떤 맥락에 있는 것일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에 버금갈 만큼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만큼 개인으로서의 삶보다 사회적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서는 정치를 추구하고 선호한다.

여러 가지 연구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인=아바위꾼」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정치인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십성 기사라면 빼놓지 않고 읽는다. 어느 민족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민족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민족이 남의 나라에 의해 식민지 통치를 당해야 했던 그 쓰린 기억, 해방 이후의 신탁통치와 반탁을 둘러싼 참예한 대립, 그리고 연이은 데모와 쿠데타 등 실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여성들이라고 해서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결코 무관할 수는 없다. 가까운 역사만 보더라도 명성황후는 정치적 역량이 컸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멀리 신라시대의 선덕, 진덕, 진성여왕에 이르면 여성과 정치의 맥락은 한결 도타움을 알 수 있다. 근대정치가 도입된 이후에도 우리는 임영선, 박순천, 김윤덕, 김옥선씨와 같은 굵직한 여성정치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제5공화국에서는 「정통성 회박」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감추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정책이 처음으로 강조됐던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활기를 띄기 시작한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도 컸다. 이때부터 우라



나라에서도 여성정책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했다.

83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돼 여성정책의 산실로서 기능하게 되었으며 김정례씨가 보사부장관으로 임명됐는가 하면 전국구 의원으로 여성계 인사들이 다수 선출되기도 했다.

물론 이보다 앞선 유신시대에도 유평회가 있었고 그 앞에서도 국회에는 비례대표제가 있어 일정수의 비율만큼 투표 없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프리미엄을 일부 여성들이 이른바 「여성대표」라는 이름으로 얻기도 했다.

따라서 정치 속에서 여성은 늘 한 자리를 차지했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여성의 대표였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여성의 대표」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성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5공화국까지의 정치와 여성과의 관계가 「선택된 극소수 여성들의 영역」이었다면 제6공화국에서의 그것은 본격적인 여성대중과 정치를 연계시킨 「민중여성정치」의 태동이라고 정의할 만하다.

제6공화국을 담당할 정권을 가려 뽑는 대통령선거 당시 여성들은 비로소 한사람의 유권자로 인식되었다. 「여성의 한표」는 새삼스럽게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여성표발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여러 입후보자들로부터 앞다퉈 발표됐다. 여성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조항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이른바 가족법 개정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후보가 빠짐없이 들고 나왔던 것은 그 좋은 예다. 또 이 당시 막판 초읽기에 몰리고 있던 국회가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묶여 냉가슴을 앓아오던 수많은 동성동본 부부들을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켜 한시적이거나 이들을 구제해 준 것도 대통령 선거에서의 여성표를 의식한 민정당의 선심이었다.

그러나 과연 여성대중들의 표가 한국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분석된 바 없다.

제5공화국의 바톤을 넘겨받은 제6공화국은 여성정책의 총본산으로 정무제2 장관실을 행정기구에 신설했다. 주목을 끌었던 초대장관으로는 언론인 출신의 조경희씨가 취임했다. 정무제2 장관은 조경희·김영정·이계순·김갑현·권영자·김장숙씨로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92년 대선때 역시 여성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득표전략은 치열했다. 「차라리 부러지고 말 것 같은 강직함」으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지내온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주변의 권고에 따라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양복 윗호주머니에 빨간 행커치프를 꽂아본 김대중씨의 뉴DJ플랜도 따지고 보면 여성들을 의식한 득표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이른바 문민정부에서 행정부의 장자리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숫자는 괄목할 만 하다. 아예 「여성정책 전문」이라는 팻말을 내건 정무제2 장관을 제쳐두고서도 2년여의 길지 않은 기간동안 무려 황산성·박양실·송정숙·김숙희 씨 등 4명의 장관을 배출해냈다. 분야도 환경청·보건복지부·교육부 등으로 넓혀졌다.

문민정부와 궤를 함께하고 있는 지방자치제 역시 여성과 정치와의 관계를 도맡게 해주는 것 중의 하나다.

92년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대전 등 광역시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던 광역의회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실속이 있어야 했던 여성후보 내세우기

에 주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공짜티켓」이 아닌, 정당한 승부겨루기를 통해 광역의회 의원이 된 여성들도 탄생했다.

이것은 여성과 정치를 따져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국회의 역사에서 여성이 지역구에 입후보하여 실력대결 끝에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경우는 박순천·김윤덕·김옥선 의원이 전부였다. 작고한 박순천 씨를 제외한 두 사람은 그나마 제5 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정치규제자로 묶여 무려 10년간을 「정치인이되 정치할 수 없는」 감옥같은 생활을 해왔다.

이후 스스로의 힘에 의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명실공히 국민의 대표로서 인정받은 여성정치인은 광역의회의원이 탄생하기까지는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올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머쥔 여성들의 힘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곧 살림꾸러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여성들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여성 정치인을 지원하는 여성계의 목소리도 이전 한결 높아졌다.

여성단체들로 대표되는 여성계는 제5 공화국 시절까지만해도 정치에 관해 이렇다할 이익집단의 구실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학교수 가운데 여성인 사람들이 여성대표의 열매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정도였다.

87년 대선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여성단체들은 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대표급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따져묻기도 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에 입후보한 여성이 있을 경우 유세장에 지원을 나가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올 6월로 예정돼 있는 기초의회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 여성단체들은 「이런 후

보가 바람직합니다」하는 의견을 내놓고 적극적인 지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성단체가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하며 운동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여성과 정치는 장미빛인가.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의 현실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한다. 아직도 우리의 정치현실은 중진국, 아니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과 정치」라는 항목에 관한 한 형편없는 후진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제의원연맹(IPU)에 가입

않아 경제성장과는 무관하게 정치분야의 높은 벽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일까. 2백99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6명(약2%)에 지나지 않음을 생각할 때 후진국 가운데서도 꼴찌에 가까운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는 한 여성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으며, 그들의 능력 또한 왜곡된 시각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간은 80년대 이전 상황에 비쳐볼 때 한결 속도감있게 흘러가고 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싫든 좋든 어떤 분야에서건 여성(그것이 비록 생물학적인 의미라하더라도) 이 한 자리쯤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그 폭을 넓혀 간다면 정치인에 대한 경시풍조에 여성에 대한 비하감정까지 겹쳐 2 중고를 겪어야했던 여성정치인들도 한결 어깨를 펴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여성 유권자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원시적인 발상이다. 그것은 지난날 남성유권자들이 성이 다른 여성후보라고 해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불구하고 그들의 대표로 뽑기를 거부했던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다른 후보들과 겨루어도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비례해 여성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성과 위가 부각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는

노력하지 않은채, 열매를 따고자 하는 이들도 여성 파워신장과 비례해 많아져 간다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여성정책이 무엇인가 따져묻기 전에 전국구의 빈 자리를 더 반기는 일은 없었는지, 「속 빈 강정」같은 머릿수를 내세워 득표에 혈안이 돼 있는 정당인들을 혼란시키지나 않았는지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일년에 한 번하는 정기총회마저도 적당히 둘러대거나 아예 생략한채 서류상으로만 처리해 버리는 단체, 몇몇 인척만이 회원의 전부인 단체를 위한 단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장기집권의 고삐를 놓지 않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여성단체 속에 존재하는 한 여성계가 「보통 여성」들의 구심점은 결코 될 수 없으며 다수의 여성들을 정치세력화 할 수 없는 것 또한 자명하다.

올해만 하더라도 광역의회 8백 66명과 기초의회 4천 3백4명의 선량을 뽑게 된다. 특히 정당추천제로 실시되는 광역의회의 경우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정원의 10%가 「공짜승선」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자당은 당초 이를 모두 여성계에 주겠다고 했던 데서 한발 후퇴, 현재는 비례대표할당지분의 80%수준을

여성에게 배당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전국을 합쳐 본다면 어쨌든 43명 이상의 여성들이 「공짜승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껏해야 각 지역의 광역의회에 한 두 자리를 놓고 경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공략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는 같은 여성들에 대한 모략으로 이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믿고싶지 않은 얘기-서울지역에서는 힘깨나 쓰는 여성들은 아예 지역구는 뒤통이고 비례대표에만 열심이라는-마저도 정당쪽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도 정당의 한켠에서는 「여성 후보를 많이 공천하고 싶어도 자격을 갖춘 인물이 부족하다」라는 탄식의 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맥없는 탄식에 언제까지 「프리미엄을 얹어 키워달라」는 주문만을 계속할 것인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는 아무도 그 정답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치에 있어서의 여성파워는 프리미엄시대는 끝났음을 예고해 준다.



한 세계 1백76개국 중 94년 6월말 현재 여성국회의원 수는 하원이 3천7백6명으로 전체 10.7%, 50개국에 있는 상원에서는 불과 4백61명(8.6%)이다.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39.4%며 다음이 핀란드(39%), 스웨덴(33.5%), 덴마크(33.0%), 네덜란드(31.3%)의 순이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중국이 21.0%로 12위를, 북한이 20.1%로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G7국가인 일본은 중의원(하원)의 경우 14명(2.7%)로 1백49위, 참의원(상원)은 38명으로 전체의 15.1%에 지나지



세연내과의원
SEYON MEDICAL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김 경 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9(경 빌딩 2층)

교정학박사

백 일 수 **지 과**

80년 치의예과 졸

평촌 ELAND PLAZA
TEL: (0343) 85-0123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虛와 實

여성의 근로조건에는

일하는 작업장의 환경 뿐만 아니라

일터로 떠난 후 가정의 상태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은영 (포스경연연구소 책임연구원
93년 경제학과 졸업)

1. 들어가는 말

최근들어 "미시족"이라는 신종어가 우리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나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유형이 과거의 주부와는 완전히 다른 소위 '신세대 주부'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의 소비패턴 또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만큼 독특한 것이어서 여성 의류를 비롯한 여성용품 생산기업은 미시족이라는 소비층을 겨냥한 신제품과 마케팅, 그리고 광고전략까지 선보이고 있다.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그야말로 쪼개고 쪼개어 생활과 자녀교육 등등을 해결해 왔던 근검절약의 주부상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상승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년 36.3%에서 '93년에는 47.7%로 증가하였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봐도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즉 '93년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0%, 50.7%였고 우리와 비슷한 경제상태에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46.2%, 51.3%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과거보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화되었고 직장내에서 여성에 대한 시각과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여성 삶의 질은 과연 개선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가사와 육아, 그리고 직장내에서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고달픈 일과 사이를 오가며 좌절과 좌의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전업주부로

1)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놀러 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무언가 자신을 개발해야겠다는 강박관념과 이와는 동떨어진 현실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에서는 Carrer Woman의 열풍이 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여성의 삶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 경제 활동 증가의 원인과 고용구조

우선 여성이 직업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때문이다. '91년 여성의 취업사유를 살펴보면 생계유지와 가계유지를 위해서 52.4%, 그리고 가업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Unpaid Family Workers)가 24%인 반면, 적성 및 사회경험을 위해서는 20%였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주의 가구원의 소득비율이 '83년 16.4%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도 여성의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인데, '70년 전체 여성중 고졸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1%에 불과했던 반면, '90년에는 36.7%로 크게 증가했다. 즉 고학력 여성일 수록 임금수준이 높아 직장을 포기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커짐으로 인해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다. 직종별 취업자의 여성 구성비를 살펴보면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직종의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특히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는 직종은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사무관련직이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경우, 전체종사자에 대한 여성의 비율은 '80년 25.4%에서 '93년 37.6%로 사무관련직은 32.7%에서 41.4%로 증가하였다.

소비생활의 질적인 변화도 직장여성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가구의 평균자녀수가 감소



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질적인 상승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구매형태도 고급내구재 및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 및 고용구조를 살펴 보면 아직도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형태면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93년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54.8%에 해당하는 602,655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남녀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의 차이, 저임금 직종에의 여성인력 집중, 남녀차별 등이 그 예이다.²⁾ 고용구조의 측면에서는 '93년 남성취업자중 일고³⁾ 근로자의 비중이 8%인데 비해, 여성취업자중 일고의 비중은 10.3%로 나타났다. 일고형태의 남성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취업자의 일고 비중은 '80년대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노동력 공급의 구조가 점차 여성화, 고령화 되면서 시간제 취업, 일고 등의 임시고와 축타 및 인력파견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생산 및 사무의 자동화·합리화 추진과 불편한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은 외주와 하청을 이용하거나 임시고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령 및 기존 여성은 제조업의 초과수요를 일시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노동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종합하면 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고임금 전문직종의 여성진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여성노동력의 일부분이며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력은 남성노동력의 부족현상을 메우는 불완전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3. 보다 건강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제언

어제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력의 근간인 인력 자원(Human Capital)을 생산활동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외식산업, Home Automation,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교적인 문화에서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왔던 가정의 주부가 직업을 가짐으

② 이 수종의 한국의 여성노동시장(EDR)에 의하면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100으로 보았을 때 생산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29.9%이고 결혼유무로는 88%가 설명되며, 32%가 설명될 수 없는 부분 다시 말해 성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 직종대분류 기준)

③ 일고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이러한 일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게다가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도 질적인 면은 차지하고라도 양적인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변변한 타아소 하나 찾기가 어려워지자 최근 아이를 돌보아 주는 양육모의 임금은 웬만한 근로자의 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육아가 할머니 세대인 50~60대의 중노년 여성층으로 회귀하고 있어, 이들 세대는 사회변화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왜곡을 모두 짊어지고 있다. 즉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한 만큼 이를 뒷받쳐 줄 제도나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 지지 못해 발생한 아노미 현상을 직장여성 세대와 그 어머니 세대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건강은 바로 가정의 건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가정과 직장으로 오가며 혼돈을 겪고 있는 여성이 주부인 가정에 안락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여성의 근로조건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의 근로조건에는 일하는 작업장의 환경 뿐만 아니라 일터로 떠난 후 가정의 상태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바로 이점을 들어 여성의 고용을 기피할런지도 모르지만, 사회가 존속

할 수 있는 근원이 태초이후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여성의 출산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력의 공급원이 가정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타아와 육아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인 자세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집안에서의 성역할, 남성은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살림을 하는 성역할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많은 신세대 부부는 원시적인 형태로나마 가사를 분담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수록 가속화 될 것이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철폐와 더불어 여성은 매우 강력한 사회단체로 출현하리라 기대된다. 여성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동관심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소비의 주체이다. 주어진 환경을 제약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방식의 시대는 끝났다.

여성과 가정의 권익을 찾아 보호하며, 왜곡된 남성상마저 바로잡기 위해 주어진 제약조건을 기회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대의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는 때이다.



기성세대를 위한 경배와 찬양

삼위일체 승가 ①

모작에 얹으신 하나님 ②

홍정식 목사 창작찬양집
모성음향 TEL:504-0975

한나 여성클리닉

부원장 구정진

서초 전철역 신축 대법원 정맞은문
TEL:523-3911

여성 사회적 지위의 후진성 :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참여확대를 통한 여성 지위의 제고방안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이 아예 사장되거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여성 개개인은 물론, 사회전체로 볼 때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사회학박사, 76년 사회학과 졸업)

1. 시작하는 말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성불평등 현상 등에 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정책세미나, 정당의 선거공약 등을 통해 수 많은 정책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여성문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스위스의 국제경영(IMD)이 발표한 주요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항목의 경우 한국은 42개국 중 41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문제의 심각성 및 여성정책의 낙후성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후진성을 부문별로 살펴본 다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여성 사회적 지위의 현황

1) 정치부문

공직 영역 중 여성들의 참여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이 지방의회, 국회 및 정당 등의 정치부문이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총 후보자 1,206명 중 여성후보자는 35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였다. 그 가운데 선출직인 지역구 후보자는 총 1,052명 중 19명으로 1.8%에 불과하였는데 이들 모두 낙선하고 단지 전국구에서 당선된 4명만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 여성의원 비율은 총 국회의원 299명 중 1.3%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1년 선출된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수는 전체 4,304명 중 40

명, 광역의회 의원 역시 총 866명 중 7명으로 각각 1%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의 경우 1993년 현재 민주당은 전체 당원의 56.3%, 민주당은 46.0%가 여성당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직자의 경우 고위직일수록 여성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요 당직자별 여성분포를 보면 민주당의 경우 1995년 5월 현재 당고문 13명 중 여성은 1명, 당무위원 46명 중 2명, 지구당위원장 237명 중 여성은 2명뿐이며, 각위원회 위원장 19명 중 1명이 여성위원장이다. 사무처 요원으로는 국장은 14명 중 1명이 여성이며, 부장 29명 중 3명이 여성이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최고위원 8명 중 여성이 한명도 없으며 당무위원 51명 중 3명, 지구당 위원장은 237명 중 1명뿐이다. 사무처 요원으로 실, 국장 25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으며, 부국장 30명 중 3명, 부장 75명 중 13명이 여성이며 전문위원 22명 중에는 여성이 1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정당의 주요 정책결정직에의 여성의 참여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2) 행정부문

1993년 새정부 출범시 전체 각료 24명 중 여성장관은 제2정무장관, 환경처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등의 3명이었던 것이 1995년 현재 정무장관, 교육부장관 등 2명으로 줄어 들었으며, 여성차관은 정무장관 보좌관 1명에 불과하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1992년 현재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25.6%, 국가공무원의 29.4%, 지방공무원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등의 특징적 및 기능, 고용직에 몰려 있다. 직급별로 보면 3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1%, 5급 이상은 1.9%에 불과하며, 주로 8-9급의 하위직(70.4%)에 몰려 있다. 특정직 공무원인 판사와 검사의 경우를 보면 꾸준히 점증하

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1994년 현재 여판사는 전체 판사 1,206명의 4.6% (55명), 검사는 956명 중 0.8%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989년 '공무원 임용시행령'의 개정과 1991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모든 직종에서 남녀 채용기준의 차별이 없어진 이후,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1992년 현재 고급공무원을 채용하는 국가고시의 여성합격자 비율을 보면, 행정고시 3.2%, 사법고시 5.6%, 외무고시 10%로 나타나 아직 고급행정직에의 여성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3) 고용부문

정치, 행정부문에 비해 비교적 여성 참여의 정도가 높은 곳이 고용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3%로 1960년대 초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함께 여성의 취업구조에 변화가 있어,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개인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는 대폭 증가하였다. 직업별로는 생산관련직 종사자의 비율이 20.3%로 가장 높고, 서비스직(18.8%), 판매직(18.7%), 사무직(15.5%)의 경우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기술, 행정관리직의 비율도 높고 있는 것으로 1993년 현재 9.7%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고용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의 수준을 보면 선진 산업사회나 후발 공업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더우기 취업을 원하는 많은 기혼여성(주부)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됨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이 과대 집계되는 경향을 감안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전반적인 참여수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상



의 지위별로 볼 때,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했으나, 아직 4명 중 1명(23.6%)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한편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993년 현재 남성근로자의 반을 조금 웃도는 5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요컨대, 대다수 여성근로자들이 몇몇 소위 '여성직종'이라 불리는 기술면에서는 단순, 직업의 위계서열상 하위직인,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종에 집중해 있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여성근로자는 2차근로자(secondary worker)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지위의 제고방안

1) 정치 및 행정 : 적극적 조치를 통한 대표성의 제고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993년 현재 하원은 11.0%, 상원은 7.0%이며,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은 1991년 현재 18.2%이다. 일본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

전략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신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993년 6.8%(중의원 2.7%, 참의원 15.1%)이며,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3.3%이다. 한편 여성의원 당선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중앙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93년 현재 12%,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5%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여성의 대표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1991년 현재 9%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여성일정비율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은 1991년 현재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치 및 행정부문에의 참여는 선진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경쟁상대국 혹은 후발공업국가에 비교해 볼 때에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지위의 낙후성은 여성 자신들의 개인적 역량의 부족때문이라기보다는 법 현실, 정치,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차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참여를 늘리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개인적 노력이 필수적인 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여성들의 노력만으로 구조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잠정적인 적극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들어 특히 정치부문에 있어서의 잠정적 특별조치로서 할당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이 주축이 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할당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의원들(93.5%)이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지방선거부터 20% 공천할당제를 도입하는 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40.7%가 언젠가는 할당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연대'의 대표들은 민자당과 민주당에 우선 올해의 지방자치 광역의회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2) 고용 중대 및 차별 완화

① 유휴 여성노동력의 생산력화

고용부문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미시적 관점에서, 여성 개개인의 특히 높아진 교육수준으로 인해 상승된 여성들의 참여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경제적 능력의 제고를 통해 지위의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거시적 관점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인력수급간의 불균형(mismatch)이다. 즉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서는 인력의 과다보유(redundancy)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 현재 총 부족인원은 약 17만 명이고 이 중 이직에 의한 부족인원을 제외하면 순 부족인원은 11만 명에 달한다. 이에 반해 소위 인력의 풀(pool)이 1994년 현재 약 2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유휴인력의 대부분이 여성인력, 특히 기혼여성인력이라는 점에서 여성문제 중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우선적 정책과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분업구조하에서, 여성 특히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육아와 가사부담이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업, 근로자, 정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장탁아 및 지역탁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또한 가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를

다양화, 유연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시간제 근무(part-time), 자율노동시간제(flex-time), 재택근무제, 변형근로제 등을 보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고용, 임금, 승진등에 있어 차별받는 또 다른 기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탁아시설 확충의 경우 재원의 확보가 관건이 되겠으나, 기혼여성 노동력의 생산력화가 산업노동력의 수급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기혼여성들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산업노동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요컨대, 탁아사업에의 투자를 통해 기혼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유입할 수 있다면 유휴 여성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참여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영유아들을 공동양육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차별의 완화 :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천성 강화 조치

여성취업의 저해요인인 육아와 가사부담이 덜어진다고 해서 모든 여성노동력이 곧 생산력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 특히 고학력 여성들 가운데에는 노동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차별적 관행 때문에 취업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지역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 혹은 고용관행상의 성차별로 인해 자신의 학력에 맞는 혹은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의 취업이 대단히 어렵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하향취업을 하느니 차라리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게 되는 의사결정에는 공급

측면의 장애요인(즉 육아) 보다는 수요측면의 장애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탁아문제의 해결이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며, 이들에게는 자신의 노동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성평등적인 고용관행의 정착이 보다 큰 유인(誘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사회에서의 대학교육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으로서의 소비재적 측면뿐 아니라 미래의 전문적인 경력을 쌓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투자재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들에게 있어서 대학교육은 소비재의 구실밖에 하지 못하므로써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 욕구, 특히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통해 경제력을 확보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기회에 있어서의 차별때문에 취업자체가 어려운 뿐만 아니라(unemployment의 문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다수의 여성들이 배치 및 훈련, 승진 및 승급, 임금, 퇴직 등 모든 측면에서 평가절하적인 취업(underemployment의 문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이 아예 사장되거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여성 개개인은 물론, 사회전체로 볼 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기업에 의한 차별적 관행은 대부분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현행 남녀고용 평등법은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성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여 1987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1989년 '남녀동일임금'의 조항을 삽입하여 1차 개정된 바 있으나, 아직 법의 실효성이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법의 실성을 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가정 '평등기구

(상설)'의 설치를 통해 법의 준수여부를 엄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정부출연 혹은 정부투자 기관의 실적을 평가할 때 고용평등법 시행상황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여성고용이 확대되고 차별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 여성정책의 방향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포괄할 수 있는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정책은 분명히 세계화의 구상과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쉽게 표현하면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시혜적인 차원보다는 국가경쟁력 특히 잠재성장능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들의 능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우선점이 두어져야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담당자나 여성문제를 다루는 모든 이들이 남녀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사회적 이익을 제고시키고, 국가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일관적인 정책 제시나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과 관련이 있는 여러 행정부처들 간의 정책구상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구태의연한 정책구상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향적, 개혁적인 정책구상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정책을 구상하는 think-tank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라더

서양과 행복이 가득한 집

부라더 홈미싱

직접 느껴 보세요!
엄마의 사랑 표현

(주) 부라더유통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3-8
TEL : (02)214-6431~3

생활의 가치를 창조하는 고급생활용품점 - '세프라인 TOP'S'

국내 최고

- 디자인 하우스로서의 명성만큼
- 도시의 칼라문화를
- 창조해 가는 세프라인탑스 -
- 자체 개발로 생활의 질적
- 자급실을 높여주는 탑스가
-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식회사 탑스리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3-14 (8227) 5500
TEL : 561-5500 (내선)~19 FAX : 563-2159

중년기 여성의 골다골증 예방



박계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폐 경에 이르면 양쪽 난소의 난자수가 감소하고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에스트로겐 분비도 크게 감소하게 되므로 안면홍조 등 여러가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양쪽 난소를 절제한 경우에는 심한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이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1. 폐경기 (Menopause) 증상들

에스트로겐은 생리주기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여러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문에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면 갖가지 신체 증상이 유발됩니다. 개개인의 영양상태, 유전적 소인 및 생활 스타일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흔히 나타나는 조기 증상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안면홍조

에스트로겐이 감소될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바로 안면홍조입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 모세혈관에 영향을 미쳐 불규칙한 혈관 확장을 유발하여 때때로 얼굴, 목, 가슴에 갑자기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피부가 빨갛게 달아 오르는 데 이를 안면홍조라 합니다. 잠을 잘 때 홍조가 일어나 식은 땀에 젖어 잠이 깨이므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심하면 하루 40회나 이런 증세를 겪는데, 67%의 여성이 1년 이상, 25%는 5년 이상 계속됩니다.

기분변화

안면홍조와 마찬가지로 대뇌 신경 전달물질의 농도 변화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신경 과민상태나 기분변화를 자

주 겪습니다.

질과 요로계의 변화

에스트로겐 감소는 피부와 상피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 질과 요로계 상피세포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탄력성을 잃습니다. 요도 상피세포가 얇아지면 방광조절력이 떨어지므로 긴장성 요실금(기침이나 재치기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실금을 하게 되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이 바삭바삭하게 마르는 질 건조증으로 인해 심하면 성관계시 통증이 생기고 손상을 받거나 감염되기 쉽습니다.

기타 증상들

에스트로겐의 분비감소는 전신조직에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군살이 생기고 유방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어 까실까실해 지고 근육이 굳어져 근육통이 오며, 두통, 기억력 감퇴, 탈모현상, 목소리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후기 증상

● 골다공증

중년기 증상 가운데 가장 심각하면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질량이 감소하고 뼈가 부서져서 해지면서 특히 대퇴부, 골반부 및 장골 등이 쉽게 골절을 입습니다.

● 나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인자들이 밝혀졌으며,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일 경우

골다공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5배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조기 폐경

난소적출 수술, 조기폐경 및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 인종별

북유럽, 코카시안 여성들과 아시아 계 여성들이 흑인보다 더 잘 걸립니다.

· 저 칼슘 섭취

우유나 다른 칼슘이 많은 음식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잘 걸립니다.

· 앉아서 일하는 생활습관

활동이 거의 없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에게 있어 과다한 운동으로 인해 생리가 중지되는 경우에도 골량감소가 일어납니다.

· 저 체중

체중이 적은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험 인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구들 중에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이 있었을 때

· 흡연자 또는 과다한 알콜섭취

·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도 칼슘이 많이 손실됩니다.

● 골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

약 30대 후반 기부터는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의 생성보다는 손실이 다소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폐경을 맞은 부인에게선 더욱 많은 뼈의 안쪽 부분에서 대부분 일어나게 되며 뼈는 점점 엉성해지고 바깥쪽 역시 전체적으로 얇아집니다. 그러므로 뼈는 점점 약해 몸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척추의 속뼈(소주골)에서 더 많은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뼈는 흡수되고 새로운 뼈로 교체되는 현상이 단단한 겹질뼈(피질골)보다는 내부의 속뼈(소주골)에서 더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폐경기 후에는 골질이 척추골에서 자주 일어나며 그 후 노인층에서는 허벅지뼈(대퇴골) 등 장관골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대퇴골의 경부나 전자부에서 골질이 생기면 걷지 못하게 되며 합병증이 뒤따라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에서 폐경기 이후부터 70세까지는 가벼운 외상으로도 팔이 잘 부러지고 60세 이후에는 척추에 압박골절이 잘 발생되며 65-70세 이후에는 고관절(대퇴골 근위부) 골절이 자

주 일어납니다. 6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25%에서 10cm 이상의 키가 작아진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골절은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진단하지 못하면 노년기를 불편하고 불행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심장질환

폐경전 여성은 동일 연령의 남성에 비해 심장질환의 빈도가 거의 4배나 낮은 것은 에스트로겐이 보호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경 후 에스트로겐의 분비 감소로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HDL) 치는 낮아지는 반면,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LDL) 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치의 변화로 인해 폐경 후에는 심장질환의 빈도가 남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심장질환은 폐경기 여성의 중요한 사망 원인의 하나로 폐경기 후 여성들 가운데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암으로 인한 사망보다 거의 두배가 많습니다.

2. 호르몬 보충요법의 결정

병리검사

체내 에스트로겐 결핍을 확인

하고 현재의 건강상태에서 호르몬 보충요법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검사방법들이 있습니다. 난포 자극호르몬 검사(FSH test)에서 난포자극호르몬치가 높게 나타날 경우 이는 에스트로겐치가 낮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검사함으로써 심질환 발생위험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하고자 할때 먼저 유방조영술(mammogram)을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 호르몬 보충요법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기단계에 골다공증을 진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뼈에서 무기질이 30~40% 이상

손실되어야만 방사선 사진 촬영으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기진단 방법으로 골밀도(BMD) 측정방법 컴퓨터 단층촬영 등이 소개되어 골다공증을 조기에 진단하며 또한 예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골량감소가 진행된 다음에는 X-ray로도 진단될 수 있습니다.

병력

개개인의 병력은 호르몬 보충요법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담당의는 출산횟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의 발현 여부 및 유방암 등의 호르몬 보충요법이 금기시되는

질환 유무도 체크할 것입니다.

신체검사

정기 검사이 혈압, 체중 및 심박동수 등을 체크합니다. 담당의는 유방과 골반검진 및 질세포진(Pap 도말검사) 검사를 이용하여 난소암, 자궁암 또는 유방암의 발생여부를 진단할 것입니다.

호르몬 보충요법의 장·단점

물론, 호르몬 보충요법의 시행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호르몬 보충요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몬 보충요법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복용한 에스트로겐이 기왕의 유방암 조직을 다시 증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게스테론(합성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복용하지 않고 에스트로겐만을 단독 복용할 경우 자궁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3. 누가 호르몬 보충요법의 대상인가?

미국 국립 보건원 지침

- 1) estrogen에 대한 금기증이 없으면서 50세 전에 양측 난소를 절제한 여성
- 2) 자연적인 폐경을 경험한 여성으로서 estrogen에 대한 금기증이 없고 이 치료의 이득과 손실을 인식하고 규칙적인 추적 검사가 가능한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모든이에게?

일부 여성에게서 과거에 있었던 질환 때문에 호르몬 보충요법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 유방암 기왕력자
- 최근 자궁암 또는 난소암으로 진단된 경우
- 급성 혈전장해를 갖고 있는 경우
- 현재 임신 중인 경우
- 미 확인된 질출혈이 있는 경우
- 담당 질환자
- 간염 등 간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4. 언제 호르몬 보충요법을 실시하는가?

폐경이 되면(자연적 또는 인위

적) 바로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폐경이 되기 전인 여성이라도 안면홍조의 증상이 있거나 불규칙한 출혈이 있으면 호르몬 보충요법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폐경된지 오래된 여성(65세 이상)에게도 호르몬 보충요법을 실시하면 골밀도 소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콜레스테롤이 이미 증가한 여성에게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호르몬 보충요법은 어떻게 하는가?

투여용량과 투여기간

- 1) Premarin은 하루 0.625mg 투여하고 Progesterone의 양은 지속적 주기적에 따라 다릅니다.
- 2)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Premarin 최소 용량은 0.625mg이며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0.625mg과 1.25mg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 3) 투여기간은 최소한 10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 지속적 투여와 주기적 투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궁이 없는 여성
estrogen만 투여

이전에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암으로 자궁을 적출한 여성

estrogen + progesterone

자궁이 있는 여성

① 주기적 투여

(cyclic replacement or sequential replacement)

휴약기간 5일동안 규칙적인 월경을 하는 반면 안면홍조를 경험할 수 있다.

② 지속적 투여

(continuous replacement)

6~12개월간 불규칙한 점상출혈을 경험하게 되나 대부분 1년 후부터는 무월경이 됩니다. 출혈은 환자가 복용을 중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지속적 투여의 경우 출혈의 빈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estrogen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경감시킬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으며 Provera 2.5mg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결과 cholesterol에 미치는 영향은 주기적 투여와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7.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식이요법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인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생활 중에 칼슘섭취를 높이면 골다공증의 발병기회를 줄인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폐경전 여성은 골 성분을 유지하는데 1일 10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계속적으로 몸에서 유출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그리고 달걀 등은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보통식사에는 그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채소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몸에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칼슘이 풍부한 음식물에는 굴과 조개가 있습니다. 채식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물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칼슘이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부는 지방질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하는가는 우선 당신이 먹는 것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일주일 이상 당신이 먹은 총 음식물을 조사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필요 칼슘량보다 칼슘의 섭취가 적다면 칼슘 함량이 많은 음식물을 더 섭취하십시오. 칼슘의 섭취는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약물복용에서보다 더 이상적입니다.

운동요법

●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중을 실은 운동은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줍니다. 일정기간 동안 침대에서 활동하지 않은 경우 골량감소는 쉽게 확인됩니다. 한편 장거리 달리기와 같은 과격한 운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생리가 멈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오히려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은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알맞은 운동은 골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운동은 골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끌고 당기는 운동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보, 조깅, 자전거 타기, 등산 그리고 노젓기 등입니다. 그와 같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뼈뿐 아니라 심장이나 폐에 역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 많은 고령층에서는 보행운동이 가장 좋겠습니다. 1일 4마일(약 15리) 정도 보행 운동을 하거나 4시간 정도 서거나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수영은 도움이 될까요?

수영은 체중을 건디어 내는

운동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권장되기도 합니다. 가장 추천할만한 운동은 신체의 장골에 긴장을 주는 체중부하 운동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수영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① 균형잡힌 식사, 충분한 칼슘의 섭취
- ② 식사와 적절한 태양광선의 노출에 의한 충분한 비타민 D의 섭취
- ③ 커피, 염분, 단백질, 인의 과다한 섭취를 피한다.
- ④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 ⑤ 지나친 다이어트나 금식을 하지 않는다.
- ⑥ 골밀질을 감소시키는 약제를 피한다.
- ⑦ 알코올의 과대한 섭취를 피한다.
- ⑧ 금연을 한다.
- ⑨ 필요시 에스트로젠을 투여한다.

-특별히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폐경기에 난소의 절제를 받는 경우

서울에서 그리고 경주에서 언제나 최고의 선택은 힐튼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초특급호텔 서울힐튼! 서울의 비즈니스와 상업의 중심지에 위치한 서울힐튼호텔은 22층의 초현대식 건물로 702개의 디럭스 객실과 7개의 최고급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는 국제적 수준의 특급호텔입니다. 한국의 심장 서울, 서울의 중심 힐튼호텔에서 한국의 전통과 유럽풍의 우아함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신라 천년의 신비가 흐르는 역사의 도시, 경주! 그 곳에 현대의 신비로 다시 태어난 경주힐튼이 있습니다. 1개층의 귀빈층을 비롯, 총 324개의 호화객실, 5개의 레스토랑과 바, 비즈니스 센터, 헬스클럽 그리고 경주역과 경주힐튼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등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위해 세심한 준비와 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SEOUL HILTON KYONGJU

● 힐튼 호텔 상품권(5만원~10만원권, "오랑제리" 부패식사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예약 및 문의 • 서울힐튼 (02) 753-7788 • 경주힐튼 (0561) 745-7788 • 부산사무소 (051) 631-8889 • 대구사무소 (053) 743-4070 • 수신자 부담 080-023-7788



풍요의 무한지대, 저희가 가꾸어하겠습니다.

식품산업에서 출발하여 화학, 축산, 양어, 유전공학, 생균제 등을 비롯, 운송, 건설,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자문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제당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음악과 미술처럼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온
대한제당...

인간답게 사는 즐거움을 주는
일에서부터 풍요로운 삶을 위해 펼쳐고
있는 끊임없는 노력은 대한제당이
준비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랜 기업경영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로 식품, 화학,
축산, 양어, 유전공학, 생균제 등을
비롯하여 운송, 건설, 첨단 하이테크
기술자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복된 미래를 위해—
지금, 대한제당이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TS 대한제당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02)410-6000
본사 : 인천직할시 중구 북성동 1가 6-14/(032)764-2600~14



변치않는 위대한 스타일—

영국 귀족의 전통 코디네이션—
다스만의 위대한 스타일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DAKS
LONDON

도자기의 여왕 한국도자기 본 차이나

Fine Bone China



• 명가 (名家)

HD 한국도자기(주)
세인트 제임스

• 세인트 제임스본점 338-2631, 한양센터 540-6700, 종로센터 279-1800, 대치센터 538-9948, 노원센터 776-8300, 금동센터 273-1801, 롯데월드센터 421-8191, 이대점 365-4984, 영등포센터 636-9031, 강북센터 921-8800, 성북점 991-7592, 강남점 0342-752-6521, 분당점 0342-711-9744, 충북영점 0431-223-7500, 경주센터 0561-773-8211, 부산센터 051-245-8370, 부산하심점 051-556-1534, 광주제일상사 062-361-4477

동 · 문 · 탐 · 방

- 대구 지원판사 : 예지희
- 공인회계사 : 이정선
- 전문광고인 : 유희인
- 메조소프라노 : 장현주

• 대담 및 정리 : 현지혜



법조계

예지희

우리대학 법대출신으로서 현재 유일한 여판사인 예지희동문. '88년 법학과를 졸업하고 '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예동문은, '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직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93년 대구지법 순해배상 전담부에 발령 받은 이후로, '94년 동 지법 민사합의부, '95년 동 지법 민사합소부 배석판사로 대구지법에서 3년동안 일해오고 있다.

판사직이란 것이 결국은 소송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일인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되는 재판 자료를 조사·참조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전 과정이 학구적인 그의 취향과 적성에 잘 부합된다고 한다. 그러나 담당하는 사건의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관계되는 기록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다. 특히 업무의 성격상 일의 처리 과정이 인간적인 접촉보다는 관계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송내용에 대한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사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의 독서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다. 비록 그것이 절대선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판단에 사건당사자들이 승복할 때 그는 일의 보람을 느낀다.

"비록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



"인간이 모여사는 사회에
질서가 필요하고 법의 존재로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면
서로 정반합의 상승작용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라 할지라도 판단의 근거는 결국 관계자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소송당사자들은 가능한 모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에 합당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만 법정에서 적절한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도한 알아야 합니다." 판단의 순간순간마다 많은 고심을 하는 예판사는 비록 구심재라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나, 소송인들이 소송의 기본적인 점들을 염두에 두고 소송에 임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화법철학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고의 기저에는 결국 법이 권력의 논리에 따라 적용된다는 심증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판사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인간이 모여사는 사회에 질서가 필요하고 법의 존재로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면 서로 정반합의 상승작용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근대적 제도가 우리사회에 도입된 지 불과 몇 십년밖에 되지 못한 것을 간과하고 당장의 결과나 도입의 당위자체를 회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근들어 정부의 세계화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조계를 둘러싼 제개혁의 움직임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개혁의 주체가 누구이던간에 법의 취지와 존재이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위에서 여러 하위제도에 대한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개혁의 실효가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제도자체의 개혁과 함께 사법부 자체의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임을 예판사는 강조한다.

첫 부임지인 대구지역에서 예동문은 이제 유명인사가 되었다. 법조계에서 여성이 아직 숫적으로 희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의 직책이 이 사회에서 공신력있는 직업이기때문이기도 하다. 더욱 더 많은 여성들이 법조계와 같은 공신력있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독려의 말을 잊지 않는 예지희동문의 모습이 무척 사려깊어 보였다.

공인회계사

이정선

연 세대학교 상대에서 여성회계사 1호를 기록한 이정선동문.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공인회계사 수가 3,500명이고 이중 여성이 50명인 반면 우리학교 출신의 여성회계사는 2명뿐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선택은 다소 특이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동문의 선택은 지극히 당연한듯 싶다. 이 동문의 부친역시 회계사로써 청운회계법인의 대표이고, 전문직종을 원했던 그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회계업무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에도 단지 쉽게 접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때문에 연대 상대 여학생들과 같이 지적능력이 넘치는(?) 여성들에게 소외된 선택분야인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미래의 산업사회가 보다 전문화된 직업을 필요로하고 선호하는 만큼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지닌 여성들, 특히 연대여학생들의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사의 업무는 회계감사와 세무 및 경영컨설팅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경영컨설팅업무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이다. 기업의 재무재표에 입각한 기업상황을 이해·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업무는 기업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법인의 상용을 홍보하고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회계과 같은 전문분야의 교육이 필요한
만큼 일선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쁘고
또 제 적성에도 잘맞아 보람을 느낍니다."

교육담당인데, 이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최초로 시도한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렇다 할만한 산업교육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회계과 같은 전문분야의 교육이 필요한 만큼 일선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쁘고 또 제 적성에도 잘 맞아 보람을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계업무를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 "기본적으로 회계업무는 산수입니다. 결과의 기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니 논리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난 10년동안 회계사로 일해오면서 여성이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도 꽤 심각했다고 한다. 우선 기업내에서 여성회계사의 존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이 주도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일의 처리관행이라는 것이 여성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더욱 더 많은 여성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여 숙적인 열세를 극복함으로써 바람직한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해결방안이라는 결론이었다.

"연세에서 보낸 4년간의 시간은 제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전공공부에 몰두하느라 써클생활과 같은 취미활동에 다소 소홀했던 아쉬움은 있지만, 인생에 대한 꿈과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을 준비할 수 있었던 터전을 마련해준 선생님들과 학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일하는 여성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후배들을 위해 취업간담회같은 자리에 참석하여 회계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자질있는 백양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권장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광고계

유 희 인

1 조원 광고시장에 뛰어들어 비록 그의 일은 아직 작지만 나름대로 확실한 뜻을 세우고 있는 유희인동문.

'76년 가정대 주생활학과를 졸업한 이후 일본 동경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하고 거론에서 전문광고인으로 경력을 쌓은 유동문은 '93년 2월 Hee Agency란 상호를 내걸고 자신의 일을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

Hee Agency의 주된 업무는 각 업체의 판촉용 인쇄물을 제작하고 신문·잡지광고를 위한 재배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대형업체의 종류는 식·음료, 의류및 실내인테리어와 같은 여성이 구매의 주된 결정을 하는 분야이다. 이는 유동문의 영업전략과 결부되는 점으로 그 자신이 제품의 1차 소비자의 입장이기때문에 누구보다도 구매자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Hee Agency의 주고객은 캘리포니아 건포도, 호주쇠고기, DHL등이 있다.

지난 10년동안 광고인으로 일해온 유동문은 이제 나름대로 광고에 대한 매력을 알 것 같다고 한다.

고객에 따라서 업무내용이 다양하고 또한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그의 일의 최대의 매력이다.

"광고가 단지 제품을 팔기 위한 행위라



"모든 사람들에게
흡입력을 지니는 공통된 메시지를
찾아보는 습관은
특정분야를 떠나 직업인으로서의
훌륭한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는 생각은 광고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불과합니다. 구매자의 의도와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중성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광고업자가 지닌 매력과 일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아직은 비합리적이고 밖에 할 수 없는 한국의 광고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광고주들은 일의 성과 그 자체보다도 인적인 관계

나 연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Hee Agency에서는 광고주 섭외에 있어 해외 광고주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광고시장이 좀더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의 업체선정과 일의 진행과정이 좀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다.

70년대 후반에 거들되는 시위 때문에 대학은 매년 2학기에는 휴강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때마다 유동문은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디자인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써클모임을 통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한다. 학과 외의 그러한 과외활동이 오늘날 자신의 일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 셈이다.

앞으로 광고일을 비롯한 전문적 직업인으로 성공하려는 후배들에게 유동문은 다음과 같은 독려의 말을 잊지 않는다. "지금 당장의 용도를 떠나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흡입력을 지니는 공통된 메시지를 찾아보는 습관은 특정분야를 떠나 직업인으로서의 훌륭한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생활학과를 비롯한 가정대는 1년에 한 차례 분야별 동문전시회를 개최하고 매년 '언가의 밤' 행사도 갖고 있다. 유동문도 작년에 동문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다. 지금까지 연세 여동문회 행사에 별로 참가할 기회가 없었던 유희인동문은 앞으로 여동문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 많은 백양동문들의 최근동향을 전달하고, 나아가 서로 업무상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했다.

예술계

메조소프라노 장현주

아름다운 선율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그 아름다운 선율과 일체가 되어 사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 장현주동문을 만났다. 우리학교 출신의 음악가가 귀한 만큼 그의 활동은 더욱 돋보인다.

'86년 음대 성학과를 졸업한 그는 이태리 밀라노의 베르디콘체르바토리오를 비롯하여 오지모와 롯시니아카데미에서 수학한 후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밀라노의 Agency에 소속되어 이태리 RAI방송국 오케스트라와 밀라노를 비롯한 이태리 주요도시 및 유럽 각 지역에서 협연하였다.

오페라가수는 목소리 못지않게 연기가 중요한 만큼 그의 서구적인 외모는 현지인들이 그를 무대협연자로 선호하게 된 요인이기도 하였다.

'92년 한국에 오페라공연차 잠시 들렀다가 지금의 부군을 만난 장동문은 '93년 결혼 후 줄곧 국내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93년 귀국 첫무대에서 오페라카르멘을, 그해 가을에는 차이코프스키의 예프게니오 네기니를 공연하였다. '94년 3월에는 푸치니의 외투를 국립오페라단과 무대에 올린 것을 비롯하여 4월 한국오페라단과 나비부인, 9월 윤이상페스티벌의 꿈 공연 등 그 해 총 6편의 공연을 했다.

올해들어 3월에 국립오페라단과 베르디



"우리음악계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자와 연주자는 각자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지향해야 합니다."

의 팔스타프 국내 초연이 있었고, 4월에 글로리아오페라단과 베르디의 리골레토 공연이 있었다.

작년부터 모교음대에 출강하고 있는 장동문은 교육자와 연주자는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연주자가 반드시 훌륭한 교육자는 아닐 뿐만 아니라, 연주자는 항상 연주를 위한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양자를 병행하기에는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연주자와 교육자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도 무대를 위

해서 계속 코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연주자가 교수가 되면 실력과는 상관없이 대가로 대접받는 경향이 있다. 우리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서 양자는 각자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지향해야 할 것이란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청중들은 아직도 오페라를 비롯한 서양의 고전음악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상호간의 이질적인 문화행태와 언어장애 때문인듯 한데, 음악이 지니는 아름다운 선율때문에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리듬으로 표현되는 음악은 교육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행태이기 때문에 장르의 차이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고전음악도 대중음악처럼 자주 접하여 익숙해지면 자연히 이해가 되는 것인 만큼, 친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우리나라 오페라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연주자로서 우리무대에 충실하면서, 필요하다면 종합적교육이 이뤄지는 미국에서 좀 더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동문들 모임의 무대에서 아름다운 선율로써 동문들과의 유대를 확 인해 보고싶다는 뜻을 그는 비치기도 했다.

(대답 및 정리 · 현지혜)

여동문화에 바라는 재학생의 변



김은숙 (제8대 총여학생회장 문헌정보학과 4년)

“너 회는 여동문화가 있다면 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어깨를 들썩이며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화여대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남녀공학의 단점들을 들

먹이며 이야기할 때에도 저는 자신 있게 여학생회와 여학생처, 그리고 여동문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 여학우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 또한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여학생회가, 총여학생회가 선배님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올해로 벌써 8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이어 받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우리 학우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 또한 적잖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여학생처와 총여학생회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도 반기를 들고 나서는 학우도 보았으며, 여학생휴게실에 대해 남학생휴게실도 세워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남학우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의

동문화 문화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뀌어야 한다는 학우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동문화 문화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일그러지고 비뚤어진 남성중심적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흔히 동문화자리에 가면 술을 잘 먹는 사람이면, 잘 못 먹는 사람이면 다 같이 자강면 그릇 하나를 소주로 가득 채워 ‘원샷’을 해야 합니다. 이는 ‘술’이라는 것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함으로써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군사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동문화의 술자리에서 배움을 수 없는 것이 음담패설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이란 그저 감추어야 하거나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배우는 것으로 아는, 그래서 결국에는 너나 없이 성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음담패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문화 술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끈끈한 인간관계라고 하면서 학연, 지연 등의 봉건적 사고에 바탕한 ‘백 만들기’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백’ 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

니다. 저도 4학년이라 선배님들의 도움을 이러 저러한 면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회 진출시 아는 선배님이 있는 곳에 갈 경우, 그것이 가지는 안정감과 유대감 등은 동문 선후배 관계의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의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듯이, 선배가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더욱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단련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이런 선후배 관계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여학우들은 어차피 시집이나 갈텐데 키워서 뭐하냐는 식으로 대하기 일쑤입니다. 취직을 하더라도 남학우들이 우선시되는 일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며 학점이 매우 좋아도 여학우의 외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미역국을 먹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해도 안 된다면 외모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학우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와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시를 주장하는 여러 여성단체와 관계기관의 목소리를 외쳐 조급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니다.

이런 제반의 동문화의 왜곡된 모

습 속에서 저는 여동문화에 대한 얼마의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일그러진 남성중심문화의 대안문화는 미래사회의 새 주역인 여성문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문화는 남성중심의 문화가 그러하듯 지배와 피지배가 있고 수직선상의 질서가 위계관계를 설립하고 이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성 중심이었던 것이 여성으로 그 주체만 탈바꿈한 채 그것과 똑같은 틀에서 작용하는 다시 말해서 게임은 바뀌지 않은 채 선수들만 바뀐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대안문화로 말씀드린 여성문화는 여성특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남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이며 이는 곧 인간중심의 문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문화는 남성의 것처럼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어머니다운 넓이를 가지고 그 품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문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직적 관계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를 억압해 왔던 관계는 그 뿌리를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더 가졌려는 자와 누를 당하는 자의 것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며 비극적인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는가를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대대로 자신의 피와 살을 아이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켜 내는 거룩한 생산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것만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여성 혼자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남성과 함께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여성의 어머니다운 품성은 이를 폭넓게 받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낡고 타락한 문화의 새 희망으로 여성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런 여성문화의 강점을 파악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여성을 들었음을 주시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대안문화의 주역으로서의 여성임을 자부하면서 여동문화가 그러한 문화의 선두에 설 것을 감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여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의 공동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연세여성으로 영원히 그 이름이 아름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성이 먼저 변하는 운동
- 남성과 함께 넓어지는 운동
- 사회속에서 높아지는 운동

제8대 총여학생회에서 함께 합니다.

걸

어왔던 시간을 돌아보며

한정현 (대우전통대 전산학 교수, 77년 정치외교학)



사 람은 나이가 들면, 미래보다 과거에 더 많은 애착을 갖게 된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주변 사람들도 과거에 비추어 많이 판단한다. 나 역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느낀다. 현재는 과거의 집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미래는 또한 현재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현재의 나를 만든 몇몇 상황들을 돌이켜 보려고 한다.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됐던 동기는 매우 단순하기도 하였고, 누적된 원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했었다.

고등학교 때 원래 수학, 과학을 좋아하여 나는 이과반에 있었다. 고3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느닷없이, "같이 연대가자"는 충동에 넘어가 연대에 원서를 썼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큰 의미없이 선택한 정의과였지만 학문들의 크고, 심오함에 늘 감격하곤 했다. 백양로를 주욱 따라 피어있던 코스모스와 연대에서 가장 남은 건물인 정법대학 앞에 늘 구두를 닦으며, 신문을 보던 안경진 남자(푸락치라고 의심하곤 했지), 오월이 되면 아카시아 냄새로 뒤덮이던 연대의 캠퍼스를 해매는 꿈을 꾸곤 하였

었다. 그 후 미국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잠시 연대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편안함과 안온함을 느꼈고, 더 이상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행, 불행을 결정한다. 남편을 잘못 선택해서, 아내를 잘 선택해서 행복하고 불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나도 혼기에 처한 사촌동생이나, 친구 동생에게 신중하라고 정말 신중하게 충고하곤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항상 저지른 다음에야 깨달으니, 그것도 신의 조화인 듯싶다. 나도 주변의 신중한 모든 충고들을 무릅쓰고 서둘러 결혼한 경우이다. 부모님들은 유학도 가고 좀더 학문을 계속하기를 바라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므로, 결혼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왜 그렇게도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아마도 남보다 적응능력이 느리지 않았나 싶다. 여하튼 결혼은 내가 어렵듯이 꿈꾸어왔던 것처럼 우아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고 오로지 현실 그 자체였다. 임신을 하면서 미친 듯이 토하고, 먹어댔다. 피모스트 아이스크림 한통을 앞에 놓고 걸신들린 사람처럼 밥 숟가락으로 퍼먹던 기억이 난다. 큰 애를 기르면서, 붓글씨를 배웠다.

붓글씨는 어느정도 과거를 현재

로 부터 유리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난 내가 소속된 곳이 어딘가를 늘 곱씹곤 했었다. 원래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장식하는데 소질이 없었던 나는 선배들의 능숙한 생활에 대한 처신술에 하염없이 감탄만 할 뿐이었다.

지금은 나도 나의 결혼생활에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진다. 사람에게 개성이 있듯이 누구의 결혼도 표준일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특히 결혼은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남남으로 살아왔던 남편과의 적응과정과 자식들이 태어나고, 애들을 기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경제적인

것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결혼으로 인하여 발생된 생활은 무궁무진한 도전감을 불러 일으키는 분야이다. 또한 흥미있는 것은 결혼생활의 연륜이 결혼생활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연륜은 생활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만을 제공할 뿐이지 최적의 상태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시간과 인내심을 배워가면서, 어느덧 남남이었던 남편과 나는 서로 닮아가고 있었다.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말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서로가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 시간은 모났고, 날카로웠던 우리를 동글게, 원만하게 만들어 주었다. 과거에 우리를 알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우리가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다소 날카

롭고 직선적인 면이 많았던 나는 동글동글해지고, 순둥이였던 남편은 성질도 있게 되고, 조금은 거칠어졌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이 17년 결혼 생활의 결산인 듯싶다.

컴퓨터와의 인연은 나에게 또 다른 인생을 제공하였다. 주위의 권유에 따라 대학원에서 컴퓨터로 전공을 바꾸면서부터, 지금까지 컴퓨터는 나와 함께였다. 원래 학부에서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융통성과 상황에 맞는 처신 등을 강조한 것이 정치외교학이었던 반면에, 컴퓨터는 고집스러운 정도로 정직한 학문이었다. 늘 입력한 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만 주었다. 즉 한마디로 중심은 데 콩나고 팔심은 데 끝난다는 속담을 연상하곤 한다. 나는 컴퓨터의 이 우직함을 미친 듯이 좋아했다. 걸 다르고, 속 다르고, 입으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것에 식상해있던 나에게 컴퓨터는 신선했다.

컴퓨터의 정직함과 우직함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었다. 한번은 이런 경험에 있다. 파스칼 프로그램 숙제였다. 이름들을 입력받아 순서대로 정렬시키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초보적인 문제였다.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도 결과가 틀리는 것이었다. 제출시간 바로 전까지 며칠 밤을 새워 빨개진 눈으로 컴퓨터를 쳐다보았으나,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간단한 인덱스 하나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 간단한 잘못 하나 적당히 넘어가 주지 않는 컴퓨터의 바보스러울 정도의 정확성과 나의 지시에 철저히 따르는 그 맹종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었다. “그래, 내가 한 대로만 정확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느꼈었다. 컴퓨터는 그 후부터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생활에서 실증하면, 난 늘 컴퓨터를 열고 대화를 시작한다. 인간은 배반할 수 있고 기대에 대한 실망을 주기도 하나 컴퓨터는 한번도 그러지 않았다. 난 때때로 잠이 안오거나, 남편을 기다리면서, 또는 애들을 야단쳐 놓고 컴퓨터에 마주 앉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난 내 옆에 있는 컴퓨터를 느낀다.

매학기 첫 강의를 하면서, 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컴퓨터는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며, 인간에 의해서 우수해질 수 있고 또 바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다. 왜냐면,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변했다고 한다. 성격적으로 웅장해지고 정확해졌다고나 할까...

남들은 나에게 다양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곤 한다. 나 자신도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못해서 후

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가보지 못한 또 다른 길에 대한 호기심이나 미련을 갖고 싶지 않았다. 욕심을 많이 내서 이것 저것 다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피곤했고 늘 힘들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나고 비슷한 사람도 있었지만, 두번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없이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1달 후에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도, 주저없이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요번 겨울은 계속 체중이 줄고, 잠을 잘 자지 못했다. 계속 불평을 하니, 친구가 병원에 가보라구 한다. 누구도 그러다가, 갑상선으로 혼이 났고, 누구는 흑이 있었다며 우리도 어느덧 체크 세대라고 한다. 그런 말을 들으니 불현듯 겁이 나서 부랴부랴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담석이었다.

40여 년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치고는 싸게 든 편인지도 모른다. 결과를 알기까지 몇번 병원을 왕래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인생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었다.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야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나와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요즈음은 가끔 공원을 산책해 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적조했던 친구와 차도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한다. 아직도 습관적으로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나, 이제는 걸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돌보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손해본 나의 인생의 여유를 되찾고 싶다.



다 시 한번 살고 싶은 내 사랑, <알로하>

정영자 (부산대학교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64년도 국문과 졸업)



답 장 년물이 늘어진 인문대학 강의실을 나서서 연세 숲길을 돌아 이화여대 뒷문 방향으로 오는 언덕 위에 여학생 기숙사, <알로하>는 있었다. 평범한 나무문쪽으로 달린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면 소박하게 작은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있었다. 매한국죽으로 시작되는 방과 동꽃이 아름답게 피던 현관 앞 풀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이다. '연세'라는 서구적 이미지와는 달리 옷장이 딸린 온돌식 방은 두 사람씩 사용하게 되어 있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 시간 때의 사감선생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나는 자주 울컥 쏟아지는 감사함과 그리움으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였다.

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도 저희들을 건강하고 복되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음식 먹고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부모님께 늘 감사와 사랑을 가지는 학생들이 되게 해 주시고...”

최치선 선생님의 기도는 늘상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그 때마다 부모님의 영상이 떠오르고, 형제들이 보고싶고 집이 그리워지기도 하였으며 착실하게 공부하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다. 기도의 마음 다스리는 일은 그 때의 우리들의 청춘과 열정에는 주요한 일이 되기도 하였다.

가을이 무수히 떨어져 내리던 낙엽과 낙엽 무더기 위에 앉아서



오후의 음악을 들으며 싱그러운 청춘을 엮어가던 날은 우리들의 일생에 빛나고 순수하던 꿈의 시대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숲길을 걸어 학교에 다다르면 경상대 건물을 지나 논지당 마당을 돌고 인문대학 건물에 이르면 남아가던 건물의 담장이는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내일은 시작되었다. 결코 화려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강의실, 그러나

언제든 진지하게 시작되던 교수님들의 강의는 열정이 넘쳤다. 수업이 끝나 서둘러 기숙사에 돌아오면 일찍 시작되는 저녁식사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초여름이면 기숙사 뒷뜰 마당의 고추밭에서 풋고추를 따서 고추장에 찍어먹고 일하던 아줌마 부부가 손수 가꾸던 상치밭의 상치를 따서 된장에 찜을 써서 먹던 그 날의 자연식은 오늘날 새로운 영양

식으로 변화를 거듭하는 우리들 식탁의 모델적인 것이었다.

박인환의 시처럼 세월은 가도 그리움은 남는 것이다.

알로하에서 마주치고 우정을 나누던 각처에서 올라 온 학생들과 선후배의 우의는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들을 이끌었고 작은 사회조직원으로서의 연습과 규범을 제시해 준 것이었다. 유감없이 공부했고, 착실하게 생활하였으며 유쾌히 떠돌았던 우리들의 <알로하>, 그 곳 수요일에배에서 나는 김남조 시인을 만났고 박경리 선생님을 만났다. 문학의 열정과 깊이도 <알로하>에서 키웠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예비도 그 곳에서 하였다.

새로운 5월이 돌아왔다.

앞은 앞대로 싱그럽고 대지는 대지대로 부산한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들은 바쁘다.

이 오월에 나는 내 사랑, <알로하> 가는 숲길에서 내 오십의 삶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 다시 그리운 학교 숲에서 지금은 혼적조차 모르게 변화된 그 <알로하> 어디쯤을 먼 눈빛으로 찾게 되리라. 분명한 것은 아직도 우리는 청춘의 열정으로 세월을 삭히며 조금씩 겸허하고 많게는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 사랑, <알로하>.

좋은 집, 귀한 방에서 젊음을 보낸 빛나는 역사가 그 곳에서 있었다.



서시

시인: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임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언더우드관 앞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사람과의 <만남>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은 부모, 스승, 친구, 배우자 등과 만남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삶을 영위해 간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남이 중요하다. 사람의 운명은 만남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을 부모로 만나느냐에 따라 자식의 운명은 달라진다. 유유상종이라 하듯 친구를 잘못 만나 교도소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 패가망신하는 예를 주위에서 많이 본다.

또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이 훌륭한 제자의 탄생이라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한 실례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플라톤에서 본다.

플라톤은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 세 가지 점에서 신에게 감사했다고 한다. 첫째, 여성에게는 안된 말이지만,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태어난 것과 둘째, 노예가 아닌 귀족으로 태어난 것과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만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플라톤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스승인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에 대해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서양철학의 원류를 이루고 있는 플라톤의 존재는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다.

나의 경우를 말한다면 연세대학교가 나의 모교임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연세대학교의 만남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이다. 육신의 고향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면, 연세대학교는 나의 영혼의 고향이다. 인생관, 세계관을 확립시켜 준 곳이 영혼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

므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연세대학을 선택할 것이요, 나의 2세 그리고 3세도 연세동문되기를 바라는 마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모교를 방문하는 것을 적지 않은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모교를 방문할 때마다 삶의 회열을 맞본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고향에 찾아온 듯 아늑함을 느끼는가 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애절한 먼 추억에 한숨짓기도 한다.

고속도로처럼 쪽뿔은 백양로! 이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꿈

을 담금질 했던가.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추억이 뻗 길이다. 누군가가 “청년은 꿈을 먹고 살고, 노년은 추억을 반추하면서 산다”더니 과연 그 말이 옳구나 하고 감탄하니 내가 장년되었음인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백양로>라는 이름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왔다. “왜 하필이면 백양로라고 명명했을까. 생각하고 궁리하면서 걷는 길을 상징하여 사색로(思索路)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푸념도 해보았다. 내 머리 속에 그려보는 이상적인 백양로는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걸으면서 학문을

논하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대화의 광장, 사색의 광장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소박한 바람과는 달리 지금은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으며 연락부절 달리고 있



안중만 (현역사 사장 7년) 연세대학교 졸업

는 것이 마음 아프다. 전혀 물정 모르는 소리한다고 코웃음 치겠지만 원컨대 백양로에는 당장 자동차 통행을 막고 연세인이 꿈을 심고 가꾸는 꿈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기를 염원해 본다.

백양로에서 본관으로 가는 돌출계를 올라서면 언더우드 동상이어서 오라는 듯 환영하는 자세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대부분의 한국 동상들이 근엄함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언더우드 동상은 인자함이 넘쳐 친근감을 느끼게 함을 누구나 느낄 것이다.

다음에 가장 내 마음을 끄는 곳은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석조 건물 즉 스탬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러관이다. 이 건물들은 담쟁이넝쿨이 감싸 덮고 이끼가 낀 탓에 고색창연한 빛을 발해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아무데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역사의 숨결이 들리는 듯한 곳. 연세대학교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 수준 높은 역사책을 읽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 이곳은 언제나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곳이다. 지금도 나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듯하다.

“연세대는 자유의 구현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연세대는 자유의 순교자요 영원한 수호자임을 자처한다. 자유라고 하면 정치적인 자유만을 연상하기 쉬우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부자유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자유는 인류의 최상의 권리요, 최고의 가치이다. 자유가 없는 곳에 인류의 행복은 아무데도 없다. 성경에 ‘진리는 자유케 한다’고 쓰여 있듯이 진리를 탐구하는 목적은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연세인은 진리탐구에 매진하여 자유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어머니 연세는 항상 내 곁에



외 람된 얘기지만 가끔 나이를 의식하곤 한다. 하필이면 흘러버린 세월이 건널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때가 있겠지만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만 하는 직업의 속성이 이를 더하게 하는 것 같다. 수백억원 대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서 오는 중압감, 매일매일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가의 등락에서 가중되는 어려움, 무엇보다도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眞劍勝負'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증권인들을 무력하게 하기에 충분

하다.

노천강당, 백양로 그리고 교문에서 신촌로타리로 이어지는 길과 주위의 골목들을 뒤로 하고 증권 업계에서 나름대로 등지를 뜬지 벌써 18년, 절대로 평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마음의 뒤에서 한없이 왜소해 지는 모습을 느끼곤 한다.

"이 세상에 모를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개구리 뛰는 방향과 여자의 마음 그리고 주가의 방향이다"라는 증시의 조크가 떠오른다.

神도 모른다는 株價를, 감히 神과 겨루어 보겠다고 부단히 공부하였지만, 바벨탑을 쌓은 것도 아

닌데, 간혹 신의 노여움을 산듯, 증시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맬 때가 있다. 또한, 스스로의 場勢진단이 틀릴 때에는 대중앞에 알몸으로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1977년 여름, 내가 맡고 있는 증권단에서는 당시 필승의 兵器(?)로 일컬어지는 꽃수술을 정기 연·고전에서 재사용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꽃수술의 재질이 인화성이 강한 기름종이고, 이미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것도 특히 여학생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터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주장과

증권전에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不朽의 名器인 꽃수술이어서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방염 화학처리를 해서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증권단측의 주장이었다.

격론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단원과 선배님들의 대안부재문에 대해 정작 증권단장인 본인이 꽃수술을 폐기하고 다른 증권도구를 사용하라고 나섰으니 전통성이 강조되는 증권단 안에서는 거의 탄핵수준까지 다다른 상태였다.

안전을 이유로 내 의견에 적극 동의하시던 학생처장님마저도 정기전 전날 단들이 있을 때 '꽃수술 없이 정말 자신있어?'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볼 정도이고 보면 당시 상황에선 꽃수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험일 수밖에 없었다.

무척 외로웠다. 친구도, 가족도 해답을 줄 수 없었다. 수 많은 시간을 청송대에서, 빈 강의실에서, 어두워진 노천강당에서 혼자 보냈다. 설혹, 증권전에서 시각적인 패배를 한다 해도, 꽃수술을 폐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



李世九 (서울대학교 후 (주)증권정보연구소 대표이사)

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때부터 스탠드에는 커다란 천연색 천에 의한 증권과 점차 도구가 없는 증권원의 형태-Mass Freedom이라고 불리우는 최근 증권원의 형태-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선택의 순간이나 힘든 결정의 고비에서 나는 연세를 찾아가는다.

눈 쌓인 노천강당을, 포근한 청송대를, 대강당 안에 있는 증권단실을, 파사로운 학생회관 앞 잔디밭을... 나의 어머니인 연세의 품



으로 돌아간다.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지치고 더러운 몸을 이끌고 가도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용기를 주는 어머니 같은 연세를...

물론 상상의 연세이지만... 그리고 가끔은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지금의 연세는 그 시절 보다 많이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기억의 연세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숨은 그림 찾듯 찾아보는 내 마음의 연세는 그려내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다. 어머니의 숨결과 체취처럼.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원초적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건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머니의 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냉엄한 증시(證市)에서 끊임없는 결단을 내릴 때마다 냉철함과 자신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어머니 연세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줄필을 말없이 받아 줄 수 있는 수 많은 동문과 어머니 연세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58년 동기모임

"37년간의 연세 우정을 가꿔온 58년 졸업 동기회"

58년 졸업 여동문들은 졸업한 그 다음 3월부터 지금까지 한달도 거르지 않고 37년간 모임을 계속해 왔다. 요즈음처럼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응집력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정말 모든 연세 동문 모임의 귀감이 될 수 있겠다.

그 당시 여동문들의 수는 모두 38명이었다. 해외로 간 동문들이 50% 정도고 19명 정도가 37년을 동고동락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37년간이나 연세모임이 인생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못 불가사의하다.

그 당시는 여학생이 매우 귀해 서로를 확인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6개월 정도의 알로하 기숙사 합숙생활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당시 심치선 사감님으로부터 여성으로 갖춰야 할 생활관, 예의 범절 등의 주부수업을 받고, 최치선 선생과의 불고기 파티, 최이순 선생님으로부터 남녀 공학 가운데에서 여성학을 지도받은 것은 서로에 대한 응집력과 잊지 못할 인생경험이 되었다.

또한 채플시간을 통해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배웠다. 서로 만났을 때 절대 위화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으며, 힘든 고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이 모임에서 함께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 주었고 돌아갈 때는 따뜻한 우정을 확인하며 새 힘을 충전받을



함께 야외로 봉고차를 타고 나가서, 힘든 인생길이 나 혼자 아닌 동창들이 함께 짐을 나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찬송가며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졸업 후 저마다 다른 인생의 행로를 걸어갔다. 사회에 나가 이름을 크게 날리지는 못했더라도, 연세 대학을 졸업한 최고의 엘리트 여성으로서 어떤 분은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사회생활을 계속하였다.

대부분의 동문이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이었다. 어느 동문은 졸업시 학교전체 총장상을 받은 수재였지만, 우스개 소리로 '부업학 박사'로만 살았다고 하여 한바탕 웃었다.

능력있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당시만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 동문은 "아쉬움도 남지만 동서양을 볼 때 대부분의 여자들이 한정적인 내조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도 여성의 역할은 남편내조와 자식을 훌륭히 키우는 가정이라는 소우주를 가꾸는 평화의 수호자가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58년 동기모임은 연세대 여자 동창회의 모태가 된 백양모임 일대 회장이신 문은희 동문, 그 후 김형순 회장, 김성록 회장, 또한 일대 연세 여자동창회장을 지내신 이상희 회장 등을 배출하였다.

총장공관에서 가지는 여동문의 날을 비롯하여 모교 행사 때마다 참여하여 옛날 자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세대학을 나왔다는 자부심은 평생을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그저 친목계 정도를 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기금을 적립하여 올해로 3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모두가 평생회비를 냈으며, 논지방 보수 때를 비롯하여 때마다 동창 기금을 기꺼이 기부해 왔다. 또한 동창들 간에도 축의금, 부조금, 또한 아이들 입학 때며, 이사를 갈 때 등에 작은 지원을 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였다.

올해는 환갑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하였다. 모두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5월 6일 지중해로 함께 환갑여행을 다녀온다고 한다.

연세 대학을 마음의 고향으로 알고, 37년간이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해온 이 모임은 정녕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있는가를 일깨워주는 귀감이다.



1. 여동문의 날 열려

5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신록의 연세 캠퍼스에서 여동문의 날 행사를 총장 공관 뜰에서 갖는다. 특히 이번 여동문의 날에는 모든

연세 여동문의 바램인 여성 연구소의 개원에 즈음하여 학계에 있는 여동문들이 함께 모이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그 동안 흩어져 있던 여동문들이 여자 동창회와 여성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 기대된다.

2. 열린 음악회 열려

개교 110주년 동문의 날을 맞아, 열린 음악회가 본교 노천강당에서 열렸다. 우중에 열린 이 음악회는 1000여명의 연세 가족이 한덩어리가 되어 모교 사랑의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3. 대학계열화 방안 일부확정 - 1996년 3월부터 실시, 나머지 대학은 단계적 시행

우리 대학교 일부 대학계열화 및 학부제 시행계획안이 4월말 확정되어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 학칙 개정을 통하여 199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공청회이후 관련 단과대학 및 학과들 사이에 충분한 연구 검토와 합의를 통해 마련된 최종안은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학과를 그대로 두고 계열화 하거나 학과를 없애고 학부제를 도입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번에 계열화를 시행하는 대학은 본교에 이과대학, 공과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 대학과 원주에 문리대학, 경영대학, 보건과학대학 등이다.

4. 내년도 입시요강 확정 발표

특차 전형 12월 28일, 일반전형 1월 8일

우리대학교는 전국대학 중 가장 먼저 내년도 입학시험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특차 전형은 95년 12월 28일에, 일반전형은 96년 1월 8일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반전형에서 본고사의 비중은 금년도 30%에서 20%로 낮추고,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의 비중을 금년도 30%에서 40%로 10%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특차전형은 96년도 입학정원의 40%범위내에서 선발한다.

한편 97년도 입시요강도 사전에 발표하였다. 특차전형은 1996년도와 동일하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신 다양하게 개발한 논술고사로 본고사를 실시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대학은 15년내 세계 100위권 진입의 목표로 과감히 타대학과 입시 일자를 다르게 정해 복수지원을 가능케하여 우수한 학생 선발에 힘을 쓰며, 로스를 설치도 제도만 마련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삶과 꿈 싱어즈 제 4회 정기연주회



음악대학 동창회장 신갑순 동문(도서출판 「삶과 꿈」 발행인)은 6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삶과 꿈 싱어즈 제4회 정기연주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다. 국내 최고의 성악 앙상블을 자랑하는 삶과 꿈 싱어즈는 아리아, 성가곡, 가곡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6월 여성연구소 개원을 준비하는 이영여학생처장을 만나다.”



◆ 연세 대학교 여성 연구소의 개원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연세대학이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 공학을 실시한 점을 크게 자부하면서도, 여학생이나 여동생들의 활동이 학교 내에서 별로 부각되지 않았습니. 한국 사회 전반에서 여성들의 자리가 높아지고, 여성들의 활동이 적극적인 점을 생각할 때, 또한 오히려 다른 여성 대학들에서 학교 차원에서 높은 지원으로 여성연구가 활발한 것을 볼 때 좀더 일찍 이런 일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전체 학생의 30%로 높은 비율의 구성원이면서, 특히 두뇌가 우수한 우리 연세 여학생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는 그 힘을 분출할 수 있는 중심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 연구소의 개원 소식에 기대가 큼니다. 우선 설립 배경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영 처장 : 처음 시작은 윤선 처장 당시의 여성자원개발센터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학교를 거쳐간 고급여성 인력이 사랑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학교측과 여동생들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이를 발굴 활용하고 개발해 주자는 의도에서 윤선 처장 당시 여성자원개발센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금문제, 인력, 제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어 여성자원센터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원에 편입되었습니다. 자연 여성 고유의 센터가 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연세대학에 들어 오는 여성은 최고의 재원인데 학교의 제도와 지원이 부족하여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여러 우려 속에 일단 대학교 연구소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란 학교의 제도상 무리가 없으며, 실제로 대학의 분위기와도 잘 맞아 그동안의 센터를 연구소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 사실 그 동안 여자 동창회나 여학생처에서도 많은 다른 시도가 있었지만, 남학생 위주의 높은 학교 제도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일회용으로 사라졌습니다. 우선 이번의 경우는 재정여건도 학교 전체 차원에서 후원하고 있는지요?

이영 처장 : 송자 총장께서 적극 지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직접적인 계기는 U.B. 즉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 education, 주로 아시아의 여성문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교육을 연구하는 곳을 후원하는 이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이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남녀 공학을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우수한 여학생이 가장 많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에서 특별히 여학생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또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대학에서의 여성연구소는 예를 들어 이대의 여성 연구소, 숙대의 아세아 여성연구소 등은 학교 차원에서 활발히 지원되고, 사회적으로도 훨씬 활용되는 데 비해, 오히려 남녀공학에서의 여성이 더 소극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여 개설 신청서를 냈는데 설립 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종류가

Matching Fund(대응 자금)로 조건은 해외 연세 여동문으로부터 일년에 2만 불을 모으면, 모금실적에 상응하여 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UB 재단으로부터 기본비용은 확보했지만, 문제는 미국에 있는 여동생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학회로 미국에 갔을 때, California에 있는 여동생들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California 특히 LA에는 백양회가 있어 연세대 출신 여동생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설명하면서, 가능하면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임원들이 나와서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천불을 모금해 주시는 성의에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여성 연구소가 하나의 매체가 되어 돈을 모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여동생들을 결속시키고,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도 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며, 주요 연구과제와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영 : 이 연구소는 대학간 연구소로 일단 거의 모든 단과 대학 교수님들이 연구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대학을 졸업한 여성 중 박사나 석사를 받고 특별히 직업이 없을 때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남

녀 대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양과목을 개발하는 일을 누군가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 교양학부 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여학생을 위한, 또는 여성학과 관련된 그런 과목을 연구하실 분이 없으며, 또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뿐 아니라 남녀공학 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교양과목이 필요한가 등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세미나, 학술 심포지움을 할 것이며 학내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신고, 개인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도서와 영상 자료를 비치하고, 자료도 수집할 것입니다.

다른 순수 연구소와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계에서도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지만 연구의 반을 차지하면서도 소외되어 왔던 여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합니다. 산업사회에서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들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며, 여성들을 조직사회에서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6월 연구소 개원식을 앞두고, 연구 자금 확보와 연구 인력, 장소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기에 조심스럽

고 차근차근하게 산파역할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 우리 대학이 송자 총장을 위시하여 동문회와 재단이 한 덩어리가 되어 수년간 눈부신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계 100위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산학협동연구, 동문회관련된, 노트북 컴퓨터 강의 도입 등 매우 진전적인 계획이 속속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여성들도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그 힘이 여성연구소를 중심으로 모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여학생 처장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학교 차원에서 모든 연세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학교 전체의 지원과 여자 동창회는 물론 동문회 전체의 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리하여 타 여자대학들과는 달리 남녀 공학의 특징을 살려 성차별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연구, 즉 시대를 앞서가며, 조화로운 인간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제일 처음 남녀공학을 시작한 연세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이번 여성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만 여 연세 여동생들과 여학생들이 동체, 연세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및 정리 왕세경동문)

- 3월 정기총회 및 이사회
- 4월 여동문 산업사찰(대한 펄프 예정)
- 5월 '여동문의 날' 행사 참가
'여동문의 날' 개최 - 5월 마지막 토요일
장학금 전달 : 재학생 2인 선정
'연세 백양' 3집 3,000부 발간
- 6월 '여동문의 날' 개최 평가회
- 9월 여자 동창 단합대회
- 10월 여자 동창 세미나 개최 예정
- 11월 동문과 재학생의 대화의 광장
주제 : 사회 진출에 관한 조언
- 12월 이사회 및 송년 모임

여자 동창회 1995년도 사업계획

모교를 졸업하는 여학생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무대로 활약하는 현시점에서 전체 여동문이 참여하는 여동창회로서의 발전이 요구되므로 1993년 4월 10일 개최된 정기총회사 각 단과대학의 65명 이사와 역대회장, 여학생처장, 총동문회장 및 총장부인으로 구성된 18명의 고문도 선임하여 명실공히 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로 확대조직되었다.

새 동문회관 4층에 여동창회 사무실이 마련되었고, 여직원도 상주하니,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친교의 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연세 여자동창회는 각각 분자로 흩어져 있는 개체를 끌어 모아 연결시켜주고, 정보를 주며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1. 모집인원 : 약 50명
2. 대상 : 여성 전문경영인, 예비 여성 전문경영인, 여성 공무원, 전문직 여성, 전문경영인 배우자
3. 수강기간 : 6개월
● 기간 : 1995년 9월 6일 - 12월 6일(16주간)
4. 지원 및 전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6월 20일 마감
나. 구비서류
1) 입학지원서(소정용지)-1통
2) 증명사진-2장
3) 본인 및 회사소개서(소정용지)-1통

고위여성 경영인 과정 입학 안내

- 다. 전형료 : 50,000원 납부
라. 전형 : 서류전형 및 면접
5. 강의시간 및 장소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8시
오후 5시 30분 - 6시 30분 저녁식사 제공
● 강의장소 : 알렌관 제1회의실

● 기타 사항은
생활과학대학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 전화 : 361 - 2137, 3092
▶ Fax : 312 - 522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생활과학 대학 (우편번호 120 - 749)

연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 안내

1. 학교발전 기금조성 목적

- 가. 교육시설의 확충
나. 연구기자재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
다. 학교전산망 확충
라. 도서관입
마. 연구활동 진작 및 강화
바. 복지시설 확충
사. 기타 면학분위기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2. 목표액 : 약 500억원

3. 기금출연대상

동문, 학부모, 교직원, 대학(원)생, 기업체,
각종 재단, 일반인(사회단체), 정부, 기타

4. 기탁(납부)방법

- 1) 일시 및 분할기탁
2) 적립식 납부

1995년 월

연세대학교 총장 송 자

기탁금 : _____ 원

_____ 원 약정 (기탁 예정 199 년 월 일)

한일은행 : 126-353709-01-001 예금주 : 여동문 발전기금

※ 온라인 입금의 경우 성명과 입금액을 발전·동문사무국(전화 361-2244, 2248)으로 알려주십시오.

성명 :

학과, 입학년도 : _____ 학과, _____ 년

주소, 직장 :

전화번호 :

명예회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탁 순 회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총장공관 송자 총장 부인	361-2010
이 선 영	종로구 사직동 262-3 박우영 총동문회장 부인	738-6434

2문 (역대역학생처장)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심 치 선	서초구 반포동 한신 서래APT 2-502	
현 양 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APT 311-1004	409-0407
윤 복 자	강남구 대치동 진달래APT 1-504 연세대 주생활학과 교수	412-3425 361-3131
이 양 자	양천구 목3동 동신APT 10-104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643-7659 361-3138
이 은 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53-406 연세대 아동학과 교수	515-5995 361-3148
손 경 회	송파구 신천동 진주APT 10-305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418-4182 361-3117
윤 선	양천구 목1동 신사(지)APT 406-307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648-4713 361-2135

2문 (역대회장)

성명	출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문 은 회	'63 교육	서대문구 신촌동 66	392-4819
김 형 순	'58 영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주APT B-113	783-4926
신 동 식	'62 정치외교	강남구 반포동 구반포APT 107-103 서울신문사 국장	599-6678
이 정 현	'51 영문	중랑구 상봉동 207-23	491-7611
석 현 중	'62 도서	강남구 반포동 구반포 한신6차 APT 214-208 연세대 중앙도서관 수서계 주임	599-5432 361-3309
김 성 복	'58 사학	영등포구 당산동 5가 7-2유원 1, 2차A 202-1103	675-5468

주 소 록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신갑순	'59 음악	종로구 평창동 473-2 「살과꿈」 발행인.	352-7893
임호빈	'56 신학	마포구 상산동 200-224 연세대 어학원 한국어학당 전임강사	304-2925
이금영	'60 수학	용산구 이태원동 청화APT 20-407 미8군 재무처 전산실장	798-5959
이상희	'58 교육	은평구 불광동 3동 480-171	387-1334

임원

직위	성명	졸업년도 및 학과	주 소	전화번호
회장	유승미	'63 정치외교	성북구 성북동 15-69	762-1722
부회장	주순형	'65 물리	서대문구 연희동 112-2	324-0744
총무	이진안	'71 의생활	종로구 구기동 86-1	391-6644
총무	박연미		은평구 역촌동 59-36	387-9200
회계	양은선	'77 사회	종로구 안국동 8-1	732-7655
회계	강미경		서대문구 홍은3동 277-92	396-0415
서기	박정자	'64 정치	서대문구 연희동 56-2	324-9181
서기	고계자	'64 행정	은평구 신사동 현대APT 102-902	306-9401
편집	왕세경	'77 정치외교	과천시 별양동 주공APT 501-202	504-7829
편집	현지혜	'92 국제대학원	서초구 방배동 871-4	599-4976
섭외	김영란	'77 정치외교	강남구 논현동 250-9 현대빌라 D-4	511-8110
감사	이순희	'63 생물	서대문구 연희동 112-12	337-9650
감사	장명	'71 경제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APT 101-903 연세대 강사	573-3354

이사명단

이름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화번호
한삼복	1958 영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4 파크타운Apt 125-603	0343-712-0896
한해경	1963 사학	서초구 서초동 1486-17 청광아파트빌라 202	588-8125
김지명	1970 영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Apt 33-103 한국통신연구소	557-0770 540-0770
박충언	1976 영문	종로구 평창동 455-13 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58-7263
최춘애	1977 사회	서초구 서초동 우성Apt 12-402 KBS 보도본부 보도제작 1부	556-1522 781-4311-3
김정자	1964 사학	강남구 대치동 957-8	
이규희	1963 국문	강남구 청담동 63 호성빌라 33-103 한국어학당	542-6768 361-3476
황선례	1967 도서	종로구 평창동 482-3	
이영희	1972 영문	성북구 정릉4동 266-118	914-6122
최연수	1978 불문	서대문구 홍제동 104-6 인왕국Apt B-603 상지대학	722-3057 0371)730-0154
지순자	1961 영문	서초구 반포4동 85-18 호성빌라 21동 301호	594-7103
추예주	1969 영문	강남구 신사동 현대맨션 12-202 연세대 강사	543-9359
김용욱	1964 영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86-1301	542-3500
최우숙	1960 영문	서대문구 홍은동 265-428	302-0130
신상욱	1977 불문	서초구 서초3동 1494-16 롯데빌리지 나동 303호	586-9940
김채련	1958 경제	서초구 잠원동 한신10차 Apt 331-410	535-6223
이상란	1961 경제	종로구 신영동 150-1 숙명여자대학교 영문과 교수	391-8014 710-9313
김은영	1979 응용통계	종로구 동숭동 192-2 삼균관 대학교 산업연구소	762-3252 760-1285
홍선주	1982 경영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77-705 시카고 은행 영업부장	543-1688 316-9720

주 소 록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김 해 경	1964 경영	송파구 오금동 44 현대Apt 33-704 보석상 이라보 (인터콘티넨탈 호텔내)	407-1617 551-0882
안 명 숙	1964 상과	중랑구 묵동 163-11	973-7095
맹 국 강	1964 수학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Apt 5-911	567-8241
오 정 신	1960 수학	성북구 안암동 5가 102-67	925-0220
유 의 경	1964 화학	서초구 양재동 120-8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577-4127
김 미 영	1966 수학	마포구 서교동 367-5 참이꽃이회 회장	337-0945
김 명 원	1968 생물	서초구 서초3동 1546-6 현대하이츠빌라 가-301 연세대 문리대 생물학과 교수	585-8806
이 항 순	1979 천문대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송동 132 건영Apt 106-1304	0342)704-5127
정 학 자	1963 생물	강남구 삼성동 31-20	545-1602
문 순 옥	1976 식품공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Apt 11-805 수원대학교 유전공학과	761-3901 0331)32-2101
손 태 옥	1978 건축공	강남구 대치동 미도맨션 Apt 208-1106 강남구 청담동 80-2 부건축	564-8418 549-2701-2
안 해 준	1978 식품공	서초구 서초동 삼호Apt 11-603 영등포구 양림동4가 23 롯데그라운드연구소	567-2547 670-6526
조 경 화	1983 요업공	마포구 도화동 우성Apt 6-808 대우통신(주) 반도체사업과	703-6812 864-8200
김 은 지	1984 식품공	대전시 동구 용전동 166-17 한국식품개발연구원	042)72-4883 0342)40-5148
서 정 도	1958 신학	도봉구 창동 삼성Apt 108-1604	903-1455
최 만 자	1960 신학	서초구 서초동 1565-21	583-2721
최 민 수	1965 신학	성동구 용봉동 대림Apt 6-606 천성교회	295-1005 486-3526
윤 정 예	1971 신학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Apt 14-408	599-3142
정 복 자	1976 신학	강동구 둔촌동 주공Apt 436-706	486-3526
이 의 숙	1963 정치외교	강서구 발산1동 723-8	603-8634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전 해 경	1963 정치외교	서초구 방배동 12-32	599-3437
최 신 자	1964 정치외교	성북구 성북2동 309-4	765-5857
김 해 원	1977 신문방송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 Apt 115-705 코리아 헤럴드 특집부장	571-2654 753-0583
장 경 화	1977 정치외교	서대문구 연희3동 344-23 세종대학교 영문과	335-7850
김 명 숙	1964 정치외교	과천시 관문동 71-1	502-5295
진 해 숙	1960 정치외교	종로구 혜화동 15-11 혜화가든빌라 101호	745-2145
김 최 영	1960 법과	강동구 상일동 174 우성빌라 7-301	427-1555
이 화 숙	1969 법과	강남구 대치동 선경 Apt 3-608 경원대	567-4664 0342)750-5240
주 동 금	1976 법과	서초구 서초4동 진흥Apt 8-1105 상신여대	567-1989
김 정 선	1988 법과	성북구 정릉2동 192-198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914-9762 579-1984
지 영 림	1990 법과	강남구 논현동 151-8 502호 정부 제2종합청사 법무부 자문위원실 연구위원	549-1406 503-7038
최 영 자	1959 기약	은평구 신사동 21-6	303-8706
박 길 주	1966 성악	성동구 옥수동 현대Apt 101-902 서울예고	297-9991
김 익 자	1967 성악	성동구 구의동 248-23 17/1	453-1515
박 태 경	1970 교육	양천구 목2동 왕자Apt 7-204	651-1831
양 경 자	1972 기약	서대문구 연희3동 42-20 삼성문화센터	335-6074 525-6278
이 영 자	1968 식생활	강남구 청담동 진흥빌라 3동 105호 리버트 영동대리점	517-0689 544-1656
유 영 희	1970 주생활	마포구 성산동 200-282 웅진출판 주식회사	373-2868 777-7133
김 광 경	1971 의생활	서초구 방배동 공전Apt 1-103 대전실업전문대	582-9977
김 정 식	1973 의생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112-603 우성해프라인 탑스리빙	544-6246 567-2510

주 소 록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신 난 숙	1973 의생학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B2 신난숙 한복점	512-0110
주 신 아	1977 주생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9-28L 꿈마을 간영Apt 우먼리빙 편집부장	0343)501-1802 780-0325~7
임 정 심	1969 교육	송파구 가락동 174-20 401호 서울 YWCA 이사	408-9548
신 명 희	1972 교육	서초구 반포동 100-6 삼익반포빌라 301호 연세대 교육학과	534-5055 361-3178
송 은 희	1983 체육	송파구 잠실1단지 주공Apt 56-103	421-7243
정 진 희	1984 체육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03-2	0338)73-5965
정 율 순	1960 의학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미Apt A-505 고려병원 내과	787-2975 739-3211
김 용 진	1966 의학	서초구 압곡동 160-12 김용진 내과	575-2453 422-9030
박 계 숙	1967 의학	서초구 방배동 신희Apt 라-804 연세대 보건진료소	533-1233 361-3345
최 규 욱	1970 의학	서초구 방배3동 신동아Apt 7-1205 연세대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	583-4568 361-5834
이 동 화	1973 의학	강남구 대치동 650 청암빌라 801호 순천향대학 부속병원 임상병리학교실	566-4315 790-0571
이 성 희	1977 치의학	도봉구 창2동 601-8 이덕은 치과	900-5817 993-4463
권 택 건	1978 치의학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Apt 1-1402 동작구 상동3동 324-1 권택건 치과	846-2198 821-0719
최 돈 욱	1978 치의학	강남구 대치동 국제Apt 3-805 강남구 대치동 1019-15 아주빌딩 206호 동남치과	563-3388 566-2612
백 일 수	1980 치의학	군포시 선본동 삼익소빌 Apt 375-200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5-1 평촌이랜드플라자 4층 아름다운치과	0343)79-1410 0343)85-0123
김 영 원	1982 치의학	서초구 서초4동 1312 삼익Apt 10-809 서초구 반포동 746-10 한영치과의원	566-5052 548-3482
홍 정 배	1951 간호	송파구 오금동 오금 대림Apt 2-1004 작십자 간호전문대학	403-8411 735-2956
김 소 인	1961 간호	서초구 방배동 신희Apt 14-408 고려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537-2245 920-6230
김 영 자	1963 간호	동작구 신도1동 764-3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813-3919 361-6760
김 정 자	1968 간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Apt 6-810 영동세브란스 간호부	553-5244 569-0110
김 윤 희	1968 간호	성동구 중곡4동 147-95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453-2155 961-0312

1. 학계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재직학교 및 소속학과	전 화 번 호
박 미 영	74/간호학	간호전문대 간호학과	042-531-5784
김 은 경	84/식생활	강릉대 식품과학	0391-640-2336/428-5520
고 정 미	80/수학과	강릉대 수학과	0391-42-7001
김 양 미	84/화학	건국대 화학과	450-3421
권 오 정	86/주생학	건국대 가정관리	450-3780/598-3958
신 영 숙	70/주생학	건국대(충북) 가정관리	0441-40-3583/470-0154
채 경 숙	81/아동학	경남대 유아교육	0551-49-2319
정 복 례	91/간호학	경북대 간호학과	053-425-0728
손 성 숙	74	경북대 성악학과	053-955-5001
안 황 관	78/간호학	경상대 간호학과	0591-52-0041
엄 은 희	77/기악과	경상대 음악교육	0591-751-5696
서 심 미	70/성악과	경상대 음악대	051-622-5331
이 영 미	80/식생활	경원대 식품영양	0342-750-5971
박 충 연	76/영문학	경원대 영문학과	0342-750-5110/391-7263
이 화 숙	69/법학	경원대 법학과	0342-750-5240
천 화 숙	66/사학	경원대 한국사	0342-750-5110/0342-713-3133
이 기 원	88/식품영양	경원대 식품영양	0342-750-5967
신 순 자	63/정의	경원대 가정학	252-1153
김 춘 경	82/아동학	경인여대 유아교육	032-547-8625/031-551-1793
김 윤 희	68/간호학	경희대 간호학과	961-0312
박 정 숙	87/간호학	계명대 의과대학	053-626-1321
최 선 희	91/간호학	계명대 간호학과	053-425-0728
권 연 수	68	계명대 교회음악	053-620-2260
이 혜 주	79/교육	계명전문대 유아교육	053-620-2700
김 소 인	61/간호학	고려대 간호학과	920-6230
류 은 순	80/식생활	고신대 식품영양	051-414-6063/414-1317
천 희 영	83/아동학	고신대 아동학	051-414-6063/247-7257
정 혜 영	교육	공주교대 교육학	
서 진 희	81/영문	공주대 영어교육	0416-53-2151/856-5676
김 갑 영	70/식생활	공주대 가정교육	0416-2-5687/298-7393
한 지 연	88/문헌정보	광운대 국문학과	
고 영 희	84/주생학	광주대 가정관리	062-670-2358/651-5350
육 경 희	82/아동학	광주대 가정관리	062-670-2587/062-652-2883
김 미 혜	82/아동학	구미전문대 유아교육	0546-455-8951/0546-455-6714
정 명 희	78/영문	국민대 영문학과	
유 욱 순	70/주생	군산대 가정학과	0654-60-1561/0652-224-5747
김 태 남	78/수학과	금오공대 전자계산공학	0546-467-4276
전 우 경	81/교육	김천보건전문대 유아교육	0547-32-6813

주 소 록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재직학교 및 소속학과	전 화 번 호
김 재 은		김리교신학대	364-5941
홍 혜 선	78/종교음악	경성전문대 생활음악	
박 희 옥	80/식생활	경기간호전문대 식품영양	032-428-3935
변 난 수	76/독문	대구대 독문학과	0541-50-5278
배 정 숙	76/의생활	대구대 의류학과	053-353-3181
조 성 희	71/화학과	대구가톨릭대 식품영양	0541-50-3524/783-5625
김 광 경	71/의생활	대전실전 의상과	042-623-2541
이 정 최	77/아동학	대전실전 유아교육	042-629-6157
박 혜 영	77/불문학	덕성여대 불문학과	
윤 정 분	77/사학	덕성여대 사학과	
한 정 현	77/정의	대유공전 전신과	0342-720-2098/536-7437
강 경 화	73/영문	동덕여대 영문학과	913-2001/532-7316
한 혜 경	영문	동덕여대 영문과	942-7316
김 영 옥	73/식생활	동덕여대 식품영양	913-2001 교 613/644-5062
우 남 희	71/영문	동덕여대 유아교육	913-2001 교 672/481-1397
이 종 희	83/아동학	동덕여대 아동학	913-2001/948-1590
이 진 실	77/생화학	동덕여대 식품영양	913-2001 교 615/391-4625
강 현 주	81/식생활	동래여전 식품영양	051-553-5182
김 현 주	79/주생활	동래여전 유아교육	051-200-3234
김 영 자	국문	동아대 국문학과	
강 은 교	68/영문	동아대 국문학과	051-200-7028/254-8821
윤 여 복	76/영문	동아대 영문학과	051-200-7049/622-4093
태 선 영	79/불문	동아대 불문학과	051-200-7121/202-0166
김 청 현	영문	동아대 영문학과	051-890-1132
오 영 은	71/생물학	동의대 일문학과	051-892-1500
박 옥 숙	81/체육	동의대 불문학과	
황 선 희	77	동주여전	051-200-3233
박 용 란	82/체육	동해전문대 정의과	
이 선 희		목원대 신학부	042-220-6110
김 선 희	70/국문	목원대 국문학과	042-220-6114
김 혜 리		목포전문대 전자과	0631-78-8651
이 명 최	78/식생활	배재대 가정교육	042-520-5423
신 현 옥	75/식생활	배화여전 유아교육	738-0894/549-5486
이 경 순	73/의생활	배화여전 의상학	738-0894/302-8006
진 혜 숙	60/정의	배화여전 교양과	745-2145/3990-801
추 정 선	64/교육	부산교육대 교육	051-503-5055
정 계 숙	77/아동학	부산대 유아교육	051-510-0311/051-752-0563
정 은 순	61/간호학	부산대 간호학과	051-254-0171
신 재 신	66/간호학	부산대 간호학과	240-7749
박 미 옥	81/화학과	부산수산대 화학과	051-620-6217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재직학교 및 소속학과	전 화 번 호
손 현 숙	77/사학	부산여대 사학과	051-309-5365
이 순 열	75/영문	부산여대 영문학과	051-622-3081
서 혜 관	79/도서관학	부산여대 문헌정보	051-309-5290
한 계 문	71/도서관학	부산여대 문헌정보	051-309-5269
전 영 자	64/국문	부산여대 국문학과	
황 연 숙	87/주생활	부산여대 산업미술	051-309-5345
이 명 혜	78/식생활	부산여전 식품영양	051-82-0081/83-7438
최 정 심	간호학	삼육간호전문대 간호학	212-2527
전 기 정	86/도서관학	상명여대 정보처리	0417-550-5445
김 계 숙	75/영문	상명여대 영어교육	287-5101
김 순 자	78/의생활	상명여대 의상디자인	0417-550-5500
오 명 최	70/의생활	상명여대 섬유디자인	0417-550-5398/533-3859
정 현 숙	82/아동학	상명여대 가정관리	287-5215/646-3218
이 명 재		상명여대 행정학과	398-5024
최 현 숙	78/불문	상지대 사회복지	0371-730-0154/722-3057
오 혜 숙	89/식생활	상지대 식품영양	0371-42-1121/336-1107
최 운 정	76/식생활	서강실전 식품영양	062-56-0191/54-1598
최 옥 선	63/교육	서울간호전문대	395-8011-6
신 민 섭	심리학	서울대 임상심리	760-2882
추 수 경	76/간호학	서울보건전문대 간호학과	0342-40-7156
조 동 숙	76/간호학	서울보건전문대 간호학과	0342-40-7157
한 예 경	80/간호학	서울보건전문대 간호학과	0342-40-7184
정 화 자	71/도서관학	서울산업대 전자계산	970-6716
이 소 연	73/주생활	서울신학대 기독교교육학	032-349-9381/683-0398
이 호 숙	73/화학과	서울여대 생물학과	972-2031
이 인 숙	81/화학과	서울여대 응용화학	972-2031
유 사 라	84/도서관학	서울여대 문헌정보	970-5545
구 본 영	63/도서관학	서울여대 도서관학	974-6954
조 경 혜	73/화학과	서울여대 생물학과	970-5663
위 영 희	77/아동학	서원대 유아교육	0431-62-8813/0343-87-8058
전 형 주	87/식생활	서일여전 식품영양	593-4526
백 금 옥	76	서울신학대 교회음악	032-612-2551
이 명 신	79	서울장로신학대 성악학과	
김 기 옥	77/주생활	성균관대 가정관리	0342-702-6767
이 선 경	78/불문	성신여대 불문학과	920-7095 0343-84-7770
김 재 인	71/영문	성신여대 영문학과	920-7081 647-0440
이 숙 재	73/주생활	성신여대 유아교육	920-7236/566-9939
정 이 화	영문	성신여대 영문학과	920-7484 3141-3133
안 홍 석	75/식생활	성신여대 식품영양과	920-7204/520-5739
유 희 경	법학	세종대 법학과	

주 소 록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재직학교 및 소속학과	전 화 번 호
강 경 화	77/정의	세종대 영문과	460-0115/335-7850
유 의 경	64/화학	세종대 화학과	467-5121
김 미 란	75/국문	수원대 국문학	
문 순 옥	75/식품공학	수원대 유전공학	0331-32-2101
남 혜 원	83/식생활	수원여전 식품영양	0331-292-6251
최 옥 순	73/간호학	수원여전	0331-292-6251
고 유 미	73/간호학	수원여전	0331-292-6251
고 혜 정	88/영문	수원여전 피부관리학	0331-292-6251
심 은 섭	70/영문	수원장안전문대 영문학	0331-296-0912
이 상 란	61/경제학	숙명여대 경제학	710-9313
김 고 정	71/화학	숙명여대 전산과	
이 춘 실	76/도서관학	숙명여대 문헌정보	051-743-4419
이 혜 란	56/영문	숙명여대 영문학과	710-9314/571-3296
한 성 현	64/수학과	순천향대 의학과	
방 숙	42/의대	순천향대 의학과	
김 명 옥	69/도서관학	송의여전 문헌정보	773-2600
어 주 원	73/주생활	송의여전 의상학과	778-2698/387-9552
홍 길 희	81/아동학	신홍실전 유아교육	0351-873-3630
노 명 희	73/생물	신홍실전 임상병리	0351-741-4315
김 용 순	71/간호학	아주의대 간호학과	0331-219-2114
이 이 형	의대	아주의대 호흡내과	0331-219-2114
전 미 선	76/의대	아주의대 방사선	0331-219-2114
임 인 경	78/의대	아주의대 생화학	0331-219-2114
주 일 로	87/의대	아주의대 약리학	0331-219-2114
소 의 영	79/의대	아주의대 의학과	0331-219-2114
서 광 옥	85/의대	아주의대 의학과	0331-219-2114
왕 희 정	81/의대	아주의대 일반외과	0331-219-2114
이 미 경	84/의대	아주의대 임상병리	0331-219-2114
문 혜 원	의대	아주의대 재활의학	0330-219-2114
김 영 숙	81/식품공학	양산전문대 전통조리	0523-385-7000
이 찬 혜	68/작곡과	연세대 작곡과	361-3080
곽 동 순	72/교회음악	연세대 교회음악과	361-3028/334-1893
김 조 자	64/간호학	연세대 성인간호학	361-5127/335-6729
이 연 실	62/간호학	연세대 정신간호학	037-41-6800
조 원 정	63/간호학	연세대 지역사회간호학	361-5100/0344-91-4295
윤 선	71/식생활	연세대 식품영양학	361-3119
이 중 호	79/식생활	연세대 식품영양학	361-3122/793-8795
이 영	72/교육학	연세대 아동학과	361-3150
천 종 숙	의생활	연세대 의생활학	
이 주 연	의생활	연세대 의생활학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재직학교 및 소속학과	전 화 번 호
김 영 인	79/의생활	연세대 의생활학	361-3105
고 혜 란	81/의생활	연세대 의생활학	361-3106
장 수 경	79/물리	연세대 물리학과	361-2615
이 양 자	63/화학	연세대 식품영양	361-3118
윤 복 자	58/화학	연세대 주생활과	361-3131
변 혜 란	80/수학	연세대 전산과학	
지 광 신	79/독문	연세대 독문학과	361-2335
이 숙 현	78	연세대 아동학과	361-3151
김 혜 영	80/식생활	연세대 약리학	361-5213/382-5781
윤 정 숙	72/주생활	연세대 주생활	392-0131/552-0197
홍 신 영	간호학	연세대 명예	
신 영 희	72/교육	연세대 교육학과	361-3178/534-5055
정 영 미	71/도서관학	연세대 문헌정보	361-2409
전 수 연	80/사학	연세대 사학과	
신 경 숙	82/영문	연세대 영문학과	
전 산 초	간호학	연세대 간호학과	
곽 동 경	75/식생활	연세대 식품영양학	361-3120/648-4090
양 일 선	73/식생활	연세대 식품영양학	361-3121
박 태 선	83/식생활	연세대 식품영양	361-3123/543-9866
이 연 숙	77/주생활	연세대 주거환경	361-3133/305-6274
박 경 자	79/아동학	연세대 아동학	361-3152/554-2302
박 계 숙	67/의대	연세대 가정의학	361-3345/533-1233
이 유 정	의대	연세대 일반외과	
김 혜 숙	69/간호학	연세대 모성간호학	361-5140 312-8013
최 규 옥	70/의대	연세대 진단방사선	361-5864
전 춘 영	55/간호학	연세대 간호행정학	361-5745 717-7665
김 모 임	59/간호학	연세대 간호행정학	361-5040 749-6157
이 혜 원	59/간호학	연세대 간호행정학	361-5746 926-8687
김 인 숙	76/간호학	연세대 간호행정학	361-5149 926-7350
정 현 숙	55/간호학	연세대 기본간호학	361-5124
강 규 숙	65/간호학	연세대 기본간호학	361-5130 392-7660
송 인 자	66/간호학	연세대 기본간호학	361-6760 553-8082
임 영 신	58/간호학	연세대 노인간호학	361-5157 391-5147
이 경 자	68/간호학	연세대 노인간호학	361-5136 313-2415
최 연 순	59/간호학	연세대 모성간호학	361-5123 359-9512
장 순 복	67/간호학	연세대 모성간호학	361-5135 593-8912
이 원 희	69/간호학	연세대 성인간호학	361-5134 584-9716
김 소 선	75/간호학	연세대 성인간호학	361-5748 395-1150
한 정 석	58/간호학	연세대 아동간호학	361-5125 647-4546
오 가 실	67/간호학	연세대 아동간호학	361-5131 654-6684

주 소 록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재직학교 및 소속학과	전 화 번 호
김 희 순	77/간호학	연세대 아동간호학	361-5747 420-6272
김 소 아 자	66/간호학	연세대 정신간호학	361-5128 335-6191
김 선 어	83/간호학	연세대 정신간호학	361-5145 735-8667
유 지 수	71/간호학	연세대 기초간호과학	361-5132 391-5404
유 일 영	간호학	연세대 간호학	
이 정 령	74/간호학	연세대 지역사회간호학	361-5139 417-3205
김 의 숙	68/간호학	연세대 지역사회간호학	361-5129 795-5434
하 미 경	81/주생활	연세대 주거환경	361-3145 388-4600
원 영 신	체육과	연세대 사회교육	
이 혜 연	의대	연세대 해부학	
강 복 순	의대	연세대 생리학	
황 매 란	간호학	연세대 간호학	
최 인 흥	의대	연세대 미생물학	
남 궁 란	의대	연세대 소아과	
박 은 숙	의대	연세대 재활의학	
신 정 빈	의대	연세대 재활의학	
이 혜 경	의대	연세대 성형외과	
서 창 옥	의대	연세대 치료방사선	
성 진 실	의대	연세대 치료방사선	
고 신 옥	의대	연세대 미취과	
김 현 숙	의대	연세대 임상병리	
김 현 옥	의대	연세대 임상병리	
조 혜 정	사회학	연세대 사회학	
구 현 숙	생화학	연세대 생화학	
조 명 자	음대	연세대 종교음악	
이 혜 리	의대	연세대(영동) 가정의학	
송 경 순	의대	연세대(영동) 임상병리	
정 우 희	의대	연세대(영동) 병리학	
정 현 주	의대	연세대(영동) 병리학	
김 경 희	80/수학과	연세대(매지) 수학과	
김 명 원	68/생물	연세대 매지 생물학과	0371-760-2243/585-8806
이 정 자	73/수학과	연세대 매지 수학과	0371-760-0226/374-0927
유 수 영	의대	연세대(원주) 일반외과	0371-41-6003
조 미 예	의대	연세대(원주) 재활의학	
정 순 희	의대	연세대(원주) 병리학	
김 후 자	76/간호학	영남전문대 간호학과	053-66-2154
이 인 혜	84/간호학	영남전문대 간호학과	053-626-5651
배 영 희	82/식생활	오산공진 전통조리	0339-72-1181~9/385-8676
명 순 옥	81/식생활	오산공진 전통조리	0339-72-1181~9
곽 금 주	심리학과	오산전문	0339-72-1181/542-7627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재직학교 및 소속학과	전 화 번 호
홍 순 영	77/식생활	울산대 식품영양학	0522-78-2374/77-2807
김 혜 경	76/식생활	울산대 식품영양	78-2363/77-7859
양 세 화	82/주생활	울산대 가정관리	0522-78-2389/47-1915
김 선 중	77/주생활	울산대 가정관리	0652-70-3897/77-3076/77-5478
홍 수 아	84/사회학	울산전문대 여성교육	0522-78-3234/47-7819
송 순	77/주생활	원광대 가정관리	0653-50-6653/52-2356
이 수 영	62/법학	이화여대 정의과	362-6151
장 상	신학	이화여대 기독교교육	
최 영 순	72/주생활	인제대 가정관리	0525-20-3241/21-3786
오 한 옥	81/주생활	인제대 가정관리	0525-20-3244/35-4473
박 은 매	78/교육	인천간호전문대 유아교육	
한 면 희	76/물리	인천교육대 사회교육	032-541-9656
최 재 순	73/주생활	인천대 가정관리	032-760-8170 542-2369
장 영 매	79/아동학	인천대 가정관리	032-760-8114/477-7424
백 승 화	77/전기공학	인천시립대 토목과	032-760-8748
김 영 매	61/사학	인천전문대 교양학과	032-766-5021
소 시 중	64/도서관학	인천전문대 도서관학	032-766-5021 49
남 명 숙	79	인하대	032-860-7739
배 혜 영		인하대 전지계산	032-860-7445
박 소 라	85/의대	인하대 의학과	032-860-8185
김 숙 영	78/식생활	안산공진 식품영양	593-1098
이 정 자	유학 정의	울산대 정치외교	0522-78-2812
조 숙 자	66/신학과	장로회신학대	445-3101
홍 정 혜	51/간호학	적십자간호전문대	737-3848
홍 현 진	85/문헌정보	전남대 문헌정보	042-861-2698
김 미 희	80/주생활	전남대 가정관리	62-500-6942
박 오 장	69/간호학	전남대 간호학과	062-222-2283
강 혜 영	71/간호학	전남대 간호학과	062-222-2283
이 영 숙	74/간호학	전남대 간호학과	062-222-2283
박 선 희	76/주생활	전북대 가정관리	0652-70-3837/77-3076
배 순 자	70/도서관학	전주대 도서관학	0652-220-2233
우 자 원	83/식생활	전주유식대 식품영양	0331-46-8878
장 원 희	80/교육	제주대 교육학	
김 정 희	80	제주대 상악학과	
조 은 희	84/생물학과	조선대 생물교육	062-230-7114
김 순 경	76/불문	중앙대 불문학과	
윤 현 숙	68/식생활	청원대 교양학과	0551-68-7482
이 경 혜	78/식생활	청원대 식품영양학과	0551-68-7486
이 정 숙	69/교회음악	총회신학교 음악과	
정 경 매	71/간호학	춘해간호전문대 간호학과	051-805-2212

주 소 록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재직학교 및 소속학과	전 화 번 호
이 영 선	43/간호학	춘해간호전문대 간호학과	
홍 영 혜	75/간호학	춘해간호전문대 간호학과	051-805-2212
김 인 순	60/간호학	춘해간호전문대 간호학과	051-805-2211
조 남 숙	69/화학과	충남대 화학과	042-821-6545/861-3862
김 성 태	식생활	충남대 식품영양학과	042-821-6836
장 수 경	79/의생활	충남대 의생활학과	042-821-6836
홍 춘 실	61/간호학	충남대 간호학과	
오 경 옥	90/간호학	충남대 간호학과	
김 영 희	75/수학과	충북대 수학과	0431-61-2248
이 승 온	78/수학과	충북대 수학과	0431-54-2111
박 경 옥	81/주생활	충북대 가정관리	0341-61-2743/66-2874
이 주 옥	83/아동학	포항전문대 유아교육	0562-48-5000/0562-47-8000
이 덕 화	74/국문	파어선대 국문학과	0333-655-8701~5
최 성 옥	80/종교음악과	파어선대 음악학과	0333-655-8701~5
최 용 학		파어선대 기획처	0333-655-8701
최 기 영	72/교육	한국교원대 유아교육	226-1950
성 숙 진	81/식생활	한국신학대학 재활학과	
박 기 덕	60/영문	한국외대 영문학과	961-4114
최 목 화	77/주생활	한남대 가정관리	042-629-7442/633-3989
정 민	81/간호학	한라전문대 간호학과	062-42-1675
소 금 숙	78/수학과	한림대 수학과	0361-58-1405
서 은 경	83/도서관학	한성대 문헌정보	760-4084
홍 성 주	80/영문	한양대 영문학과	290-0755
김 주 희	64/간호학	한양대 간호학과	290-0700
이 기 옥	62/행정학	한양대 행정학과	292-2111
전 정 자	63/간호학	한양대 간호학과	290-0702
전 문 희	74/영문	한양여전 영어과	290-2284/447-6598
유 은 순	83/식생활	호남대 화학과	062-940-5564/364-8159
박 동 근	54/신학과		
소 호 자	66/화공과		
홍 영 선	사학	미국 뉴욕주	
김 영 순	61/생물학	미국	
김 모 경	61/화학과	미국	
이 인 숙	교육	New Brunswick 17 Seminary Place	908-247-5241
안 우 경	85/심리학	Univ. of Louisville, Kentucky	
박 경 애	78/정의	캐나다 밴쿠버대	

2. 신문사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한 윤 정	90/영문	경향신문 경제부	730-5151
최 소 영	90/신방	경향신문 출판편집국(레이디경향부)	737-0120
최 현 수	85/정의	국민일보 국제부	705-4383
이 은 경	84/사학	국민일보 문화부	705-4363
김 용 옥	89/문정	동아일보 자료전산부	361-0199
박 경 아	86/신방	동아일보 국제부	361-0267
계 수 미	86/법학	동아일보 여성동아부	721-7627
이 영 이	86/영문	동아일보 편집부	361-0207
서 영 아	90/영문	동아일보 과학동아	721-7633
김 정 희	90/사회	동아일보 여성동아부	721-7642
방 혜 영	89/문정	동아일보 뉴미디어부	361-0844
김 현 미	90/신방	동아일보 음악동아	721-7643
정 경 환	82/사회	동아일보 여성동아	721-7627
박 영 자	문정	디자인하우스	263-6900~5
고 수 영	83/생물	매일경제신문 교열부	276-0209
최 미 숙	86/문정	매일경제신문 조사부	277-6107
신 혜 원	88/국문	매일경제신문 교열부	276-0209
김 주 영	92/영문	매일경제신문 편집부	276-0201
김 지 수	92/사학	매일경제신문 편집부	276-0201
오 은 혜	91/영문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263-1534
심 윤 희	94/국문	매일경제신문 편집부	276-0201
이 미 숙	85/교육	문화일보 정치부	3701-5106
김 연 수	86/아동	문화일보 환경과학부	
정 혜 승	94/논문	문화일보 사회부	3701-5114
박 민 정	88/주생	리빙센스	774-3272~4
신 갑 순	59/음악	살과 꿈	756-0109
이 호 영	90/불문	서울경제 국제부	724-2114
이 현 숙	77/신방	서울신문 문화부	735-7711
신 동 식	62/정의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편집국	721-5026
김 혜 경	79/사학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과학부	721-5362
신 연 숙	80/신방	서울신문 생활과학부	
김 경 화	79/신방	서울신문 출판편집국Queen부	
강 선 임	86/신방	서울신문 출판편집국뉴스피플부	721-5463
안 미 현	89/영문	서울신문 출판편집국뉴스피플부	721-5423
박 광 옥	불문	서울신문 TV가이드 편집	730-8587
임 우 범	88/주생	서울신문사 리빙센스	780-0328
진 속 형	93/주생	서울신문사 출판부	780-7238
권 혜 정	89/영문	세계일보 편집부	799-4215

주 소 록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김 미 진	88/사학	세계일보 편집부	799-4215
김 성 희	86/국문	세계일보 문화부	799-4261
김 현 숙	82/영문	시사저널 문화부	736-3200(142)
주 신 아	77/의생	학원사 주부생활사	780-0325
김 경 화	83/주생	학원사	780-0321~4
신 동 선	94/주생	학원사 주부생활사	780-0325
황 경 애	90/주생	월간인테리어	
성 배 진	94/주생	월간인테리어	
홍 경 희	90/신학	제주신문 편집국	064-40-6343
최 배 정	82/사학	조선일보 FEEL부	724-5114
이 미 경	84/정의	조선일보 문화부	724-5383
이 선 주	88/사학	조선일보 생활부	724-5383
손 정 미	89/영문	조선일보 문화부	724-5365
송 형 숙	91/간호	조선일보 비서실	
이 화 순	84/특문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문화부	724-6892~3
육 은 주	89/영문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체육1부	724-6144
이 승 민	94/경제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이 영 신	90/영문	조선일보 뉴미디어부	724-6475
홍 은 희	78/신방	중앙일보 문화1부	751-5599
권 숙 진	87/신방	중앙일보 라벨르	751-9223
손 명 성	88/신방	중앙일보 뉴스속보부	
현 경	88/주생	중앙일보 영레이디	751-5407
이 강 희	88/신방	중앙일보 세씨	751-9206
강 신 혜	88/신방	중앙일보 세씨	751-9208
이 숙 은	89/중문	중앙일보 세씨	751-9209
이 선 아	91/신방	중앙일보 세씨	751-9211
유 명 순	88/문정	중앙일보 자료부	751-5573
정 희 영	88/경영	중앙일보 경리부	751-5690
김 정 수	93/노문	중앙일보 편집2부	
안 배 리	94/사회	중앙일보 문화1부	751-5596
박 성 혜	93/사학	중앙일보 세씨	751-9212
최 윤 정	94/영문	중앙일보 여성중앙부	751-9247
이 경 선	87/국문	중앙일보 유통부	751-5542
김 행		중앙일보 조사전문기사	
김 배 원	77/신방	코리아헤럴드 정치부	727-0220
김 성 애	81/영문	코리아헤럴드 경제부	727-0114
이 선 영	80/불문	코리아헤럴드 해외2부	727-0114
김 소 영	94/주생	PLUS 잡지사	563-4322
한 은 자	85/문정	한국경제신문 편집부	360-4114
염 정 혜	92/불문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360-4114

이 름	졸업년도 및 학과	직장명 및 부서	전 화 번 호
권 성 희	94/식영	한국경제신문 유통부	360-4114
김 지 희	94/신방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360-4114
송 영 주	93/영문	한국경제신문 국제2부	360-4114
박 성 완	94/영문	한국경제신문 편집부	360-4114
최 성 자	76/사학	한국일보 생활부	724-2394~5
송 영 주	84/문정	한국일보 과학부	724-2114
이 현 주	92/정의	한국일보 사회부	
정 미 경	90/영문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편집부	724-2363
송 미 경	91/주생	새로 창간되는 잡지사	



편집 후기

연세백양이 어느덧 3집을 맞이 했다. 15년 동안 타블로이드 판 백양소식을 파내면서 여동문들의 결속과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들의 노력이 있기에 오늘 좀더 진전된 연세백양이 나올 수 있었다. 이번 호를 제작하면서 단지 연세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좋은 글과 광고를 흔쾌히 주신 스승, 선배들, 그리고 협력업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작은 노력이 2만여 연세 여동문들을 묶어 주는 연결고리가 되길 기원하며 편집에 정진했다.

연세대학은 영원한 마음의 보금자리이다. 돌이켜 볼때, 우리 삶을 지탱해 온 버팀목에는 연세가 주는 샘솟는 생의 에너지가 함께 해 왔다. 연세를 통해 재충전을 받자.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 연세의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기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한 곳으로 뭉쳐 좀더 찬란히 분출하였으면 한다. 이 일을 위해 수 많은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다.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을 실시한 사학의 명문답게 여동문들도 각자 개체로 남아 있지 말고 연세 발전의 원동력이 되자. 할 일은 많다. 남녀 공학의 특성을 살린 여성의 인간화에 대해 좀더 연구하고 세미나도 갖고 영문으로 출판도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선배들을 연결해 주고, 함께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경쟁력있는 대학을 카우치 위해...

억수같이 쏟아진 그 우중의 열린 음악회 속에서 선배배가 한덩어리가 되었던 우리는 연세를 향한 열기와 함성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각자가 빛진 연세에 대한 사랑을 연세에 다시 돌리자.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할 지 모르지만 연세는 영원히 그 생명을 이어 가리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왕세경)

시간의 흐름에 초연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묻고 싶다. 삶이 그에게 아직 의미를 지니는 것이냐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백양인들에게 '연세백양'과의 인연을 권하면서 제3호를 마감한다.
(현지예)

회비부

평생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5년 회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님께서 내시는 회비는 장학사업과 여동문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회 비: 년회비 10,000원

평생회비 100,000원 (년회비가 면제되며 분할납부가 가능함)

2. 납부방법: 한일은행 온라인 구좌

126-357575-01-001 연세여동문회